

금주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자연의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맡겨주시며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0월 5일 (토) 제 1749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창조질서 청지기로서 소명 다한다!

CT, 지구촌 최대쟁점 '환경문제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 3인 의견 보도

크리스천으로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돌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체에 현재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접하고 있고 접하게 될 환경까지 포함시켜 이웃사랑의 하나로 가꾸고 보살피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5장 17-19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에게 다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돼 있다. 환경

에 대해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크리스천니티투데이는 지구 온난화 현상, 아마존 대형 화재, 이상 기온 등 환경 문제들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3명의 전문가에게 크리스천이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물었다(Green Plus Christian Isn't New Math: How concerned Christians should be about environmental care).

하나님만큼

(조너선 메리트는 "환경친화적 하나님: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의 저자)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천이라면, 환경도 중요시해야 한다. 두 가지 영역이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불가분의 관계다.

창조세계 보전은 복음의 출발점이다. 전 세계 선교사들은 미국 기독교인이 전개하고 있는 "창조세계 보전" 움직임에 지지를 표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현지인들이 잘 모르는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창조와 창조자(롬 1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창조세계 보전은 복음 증거를 강화한다. 환경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점차 대두하는 서구 국가에서는 환경보호 정신을 '선한 사람'의 특징으로 여긴다. 자기희생적으로 환경을 돌보고, 자연이 제공하는 천연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나서는 그리스도인을 비기독교인이 목격할 때, 복음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개척교회들이 환경보호 실천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다.

비서구인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서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서구적 생활방식과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해석한 기독교 믿음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세계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미국인이 전 세계 종이의 1/3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삼립과괴로 고통과 불의에 시달리는 니카

라과, 온두라스,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에서의 복음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은 창조세계 보전을 포함한다. 창조세계 보전이나 다른 어떤 사회이슈가 복음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다. 그러나 복음은 철저히 자기희생적이고 온정적인 삶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18:19-20)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은 전 세계 이웃들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세

계 보전의 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포함한다.

환경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사명을 다하는 삶이란 진리를 말하는 삶이다. 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자행되는 불의를 외면하는 기독교 로비단체와 소위 기독교연합이라 일컫는 단체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복음전파는 요원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 축자해석"(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에서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약 비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성경의 어떤 분야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의견을 피력한다면, 어떻게 비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는가?"

크리스천이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데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다. "땅은 여호와와 의 것"(시24편)이기 때문이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시19편, 롬1장)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창 2:15)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민주당 사회주의 정책 아직은 민심반영 안돼

롤콜, NC 하원보궐선거 결과 분석

지난달 1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9번 선거구(NC-9)에서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열렸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마크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댄 맥크레이디 후보를 905표 차이로 따돌렸지만,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 집계 등에서 부정선거 정황을 적발하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였다.

민주당에서는 2018년 선거에도 출마했던 맥크레이디 후보가 다시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성소수자, 특히 성전환자를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all-gender bathroom)'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댄 비숍 주 상원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개표 결과 비숍 후보가 50.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민주당, 민심 파악 못하고 트럼프 효과 무시

이번 선거는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에의 향배를 짐작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선거로 관심을 모았다.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소속 전국하원위원회(NRCC)의 톰 에머 위원장이 롤콜에 쓴 칼럼을 소개한다(Why the GOP victory in North Carolina spells disaster for Democrats in 2020: Republicans had a unified message with a unified focus, NRCC chairman writes).

(16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한국성교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본사방문 정성구 목사

14면

ATS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su.edu | (2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백서출판 / 성구 / 성서 역자 / 개관 / 교회음악 / 영성성장 / 영안기부서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05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linnwood Terrace, Paramus, NJ 07652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악, 동시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탁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8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o@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발행인 칼럼

목마와 목말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木馬)를 타고 떠난 숙녀(淑女)의 옷자락을 이야기 한다.

목마(木馬)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라는 시(詩)를 알기 전에 회전목마(回轉木馬)가 그렇게 슬픈 것인지 몰랐다.

같은 기본이 들게 하였는데, 목마를 탄 숙녀 이야기는 목표를 상실한 채 돌고 도는 젊은 청년들의 노래 같아서 슬펐다.

삭개오의 심정(心情)이 그랬겠다. 큼지막한 사람들이 앞에 둘러서 있으니 어찌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으랴. 요즘에야 불거리가 너무 많아 무엇을 보아야할지 고민이지만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 딱히 구경거리가 없었다. 길거리 아바위꾼 아저씨들이 재빠른 손놀림으로 카드를 돌리는 것을 보노라면 곧 “자~자~ 애들은 가요”라는 윙소리가 들렸고 여지없이 쫓겨났다. 일 년에 한두 차례 윙까 말까한 동네 서커스 공연은 돈을 내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경하기 쉽지 않았다. 그나마 관중이던 것이 차력(借力)이었다. 차력사 아저씨들이 병을 꺼거나 입에서 불을 내뿜는 장면은 애들에게도 공개되었지만 앞에 둘러선 어른들 때문에 여전히 보기가 어려웠다. 이럴 때 그 모든 상황을 일거(一擧) 바꾸어 놓은 일이 간혹 있었다. 그런 불거리가 있던 자리에 같이 있었었던 아빠가 “성국이 어리 오라” 하시며 나를 번쩍 들어 올려 아빠 어깨 위로 목말을 태워주시면 나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光景)을 잘 볼 수 있었다. 내가 탄 목마는 돌고 돌다가 내리면 그 뿐이었으나, 아빠가 태워준 목말은 나로 항상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었다.

탕자(蕩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찾고 찾아 그 어깨에 메신다. 그리고 즐거워하신다.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보게 된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은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어 나는 산 위에 설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폭풍의 바다를 건너 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 그분의 어깨에서 나의 약함은 그의 강함이 된다. 그분의 어깨에서 그분의 방향은 나의 방향이 된다. 그분의 어깨에서 그분의 길은 나의 길이 된다.

꿈금이 생각해보니 회전목마에서는 어지러운 현실을 맞보았고 아빠의 목말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나의 어렸을 적을 기억하며 나도 두 아들이 어렸을 적에 목말을 태워주곤 했다. 그들은 나의 목말 위에서 어떤 세계를 보았을까?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이 타고 놀 것이 회전목마 뿐 아니라 재미있게 생긴 이름도 모를 기구들이 많다. 놀이티켓을 사주는 아빠도 좋지만 목말을 태워주는 아빠들이 필요하다. 나를 부르며 번쩍 들어 목말을 태워주시던 아버님은 이제 안 계시다. 계셔도 내가 어찌 아버님의 목말을 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들어 올려 여전히 그 어깨에 메시고 나를 보라 하신다. 더 높은 하늘을! 더 먼 땅을!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내 어깨는 움츠러져 있었는데 그 어깨에서 나는 위풍당당(威風堂堂)해진다.

가을바람이 분다. 숙녀가 탄 목마는 가을 속으로 떠났지만 내가 탄 목말은 가을 안에서 달린다.

현명하게 대처하면 길잡이 된다!

패스터스킴, 루벤스큐스의 ‘AI와 복음전파’ 관련 노하우 소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서술들이 있는데, 이 서술들은 쉽게 공포심을 불러온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지를 촉발시키며 무지란 공포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들은 타당한가?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들뜬 마음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루벤 스큐스(Reuben Skewes)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교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응용해야 하는가를 밝혀준다(Should Christians Fea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것과 같이 인공지능은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혁명적일 것이다. 그것은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바꿀 것이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바꿀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AI)이란 컴퓨터사이언스의 한 분야로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현실세계에서 행동하고 배우고 적응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가능성들을 증폭시키고 지루한 작업들을 자동화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것처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길러 로봇의 재앙에 대한 것은 아니며 로봇을 이용해서 재앙을 제거하는 것에 가깝다.

그 중심을 보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행동이다.

절차적인 면을 보면 이것은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트렌드를 예측하고, 질문에 답을 주며 데이터가 말하는 것에 기반하여 추천되는 행동을 하는

술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깊게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발명이든 인간의 행동을 흉내 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누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경계를 정할 것인가?” “옳고 그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하는데 기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일이 가지는

와 기독교 기관에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앙을 확신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신앙, 자기 자신, 그리고 세계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을 바꿀 것이다.

신앙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알며 자신들의 믿음을 간단하고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실현되고



인공지능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회를 늘려준다. 이것은 메시지를 바꾸지도 않는다. 단순히 전달하는 방법을 바꿀 뿐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인공지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성경을 어떤 언어든 언제든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발전시킨다. △자살이나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막고, 희망을 나누어준다.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 간에 언제든지 모든 플랫폼에서 답해준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지역 교회와 연결해준다. △신앙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연결해준다. △이 외에도 많다.

기독교인은 인공지능과 미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은 누구를 믿는가를 더 확실히 붙들 것 요구 성경 실시간 번역, 장애 자살 자해자 접근용이, 만능 플랫폼 제공

것이다. 더 많이 할수록 더 똑똑해지며 그런 이유로 지능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인공지능은 무서운가?

처음에 말했듯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서술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서술들은 쉽게 공포심을 불러온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지를 촉발시키며 무지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 분야 전문가들은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무서운 기

치와 존엄에 인공지능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 실업을 일으킬 것인가?” “인공지능이 미래의 분쟁조절 중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이다.

인공지능은 신앙을 바꿀 것인가?

인공지능 혁명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계속 변화시킬 것이다. 이 혁명은 교회

성과를 거두는가를 확실히 붙드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를 더 확실히 붙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다! 로마의 대로와 인쇄기,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혁명적이었던

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왜 믿는지를 알고, 우리의 기술들을 다양화하고, 우리의 사명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미래를 수용할 수 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창조질서 청지기로서 소명 다한다!

(1면에서 계속)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우주적인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기(고전1장, 롬8장, 계21장)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 가운데 뿌리내리기 원하기 때문이다.

청지기 이상은 아니다

(앨버트 몰러, 남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환경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천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다. 한편으로 크리스천들은 종종 자연주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를 둔 환경보호주의에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때로 이러한 범제신론 형성과 얽혀있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주의자들이 환경문제에 침묵, 무관심, 무심으로 일관했던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대화는 종종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치닫는다. 복음주의자들도 정치적 논의와 공공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환경에 대한 우려는 정치보다 우선하며 정책보다 깊은 것이다.

환경에 대한 적절한 복음주의적 태도는 우리가 어렸을 적 배운 '참 아름다워라'(This is our Father's world)라는 찬송가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청지기에 관한 성경적 주제는 창세기의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창조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이 창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라고 통치권 위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신다.

나는 이 성경구절과 창조질서의 청지기로서 인간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선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전달하기 위해 오랫동안 가르치고 글을 썼다. 그러나 내가 이른 결론은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고 같다는 것이다. 통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지기적 의무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빛이신 유일한 창조물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다. 이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다. 인간은 창조세계를 영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널리 알려진 칼뱅의 말처럼, 사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땅에 대한 인간의 통치목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내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창조주가 우주에 쏟은 사랑과 보살핌을 마땅히 우리 통치방식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환경보호론자들이 알게 모르게 암



시하는 범신론이나 신뢰할 수 없는 과학을 믿어서는 안 된다. 환경적 종말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러한 사상은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에 바탕을 둔 올바른 환경보호는 무시한다.

동시에 환경을 귀히 여기고, 그 상처를 치료하며, 창조세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또한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는지 말해준다. 첫째는 복음전파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복음에는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따르기 마

련이다. 올바른 환경보호론은 그 영향력의 하나다. 그러나 중국에는 세상을 지키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받은 은사에 따라

(칼 베이스너, 창조세계 청지기를 위한 콘월동맹 대변인)

나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이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딸을 돌본다. 항상 이들을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쓴다. 이모의 주치의는 이모를 잘 모르지만, 외면상으로 객관적 측면에서는 나보다 이모를 더 많이 돌살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내 딸

은 의사나 나보다 이모 가족을 개인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훨씬 가깝게 돌본다. 크리스천은 환경 돌보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환경돌보기'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돌봄을 말하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돌봄을 지칭하는가? 아마 우리 모두 환경의 가치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을 것이며, 환경을 돌보기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강바닥 쓰레기 제거, 화학공장의 독성 폐기물 방출 반대, 연료 효율성이 높고 공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엔진개발 등과 같이, 보다 객관적이고 외적인 돌봄에 제한돼 있다. HIV/에이즈 치료와 예방, 기아

대책, 전도, 인신매매 퇴치, 아이들에게 성경이야기 읽어주기 등에 시간과 재원, 노력을 동시에 투자할 수가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 내의 은사에 대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전12:20-21)라고 한 말을 적용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줄리는 환경보호 청지기 운동에 모든 시간을 쏟기 때문에 불우이웃을 위한 옷가지를 모으는 교회활동에 참가할 시간이 없다. 론은 그 반대다. 제인 엄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한편, 여신도 성경공부 모임의 리더로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주중에 연락을 취하는 데까지 시간을 쪼개 쓰고 있다. 또 공공정책에 대해 주정부 의원과 연방정부 의원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일도 한다. 이들 중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이가 있는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롬14:4).

크리스천은 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는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각 크리스천이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르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종교와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에서 내가 발표한 논문 "미국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 임무는 무엇인가"에서 밝힌 몇 가지 원칙은 있다.

지금 환경보호 이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악화에 대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환경문제 및 해결방법의 경제효과 분석이다. 또한 빈곤이 환경에 가하는 위협을 주지하고 극빈층을 위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도 환경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므로, 정부조직 내의 투명성과 책임감, 정직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허다한 공중의 새보다 사람이 소중함을 명심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



시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최해근 목사 (홍고메리교회)

지난 주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변국인 예멘으로부터 공함과 유전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 석유시장의 5%의 원유를 공급하는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국내선 공항이 미사일로 공격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던진 것이 유전지대를 드론으로 공격하여 전 세계석유시장에 불안감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멘정부로부터 반군으로 불리는 후티반란군들이 주도했다는 공식보고가 나왔지만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티반란군들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이란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군 지도자인 후티는 이슬람에서 성직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ISIS의 최고 지휘자였던 अब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성직자였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왜 같은 이슬람 국가끼리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서기 632년 숨진 이후 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생깁니다. 다음 지도자를 능력 위주로 선출해야 한다는 측과 혈통 위주로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능력위주로 하자는 측은 수니파로 불리며 혈통 중심으로 하자는 측은 시아파로 불립니다. 이들은 상대를 암살하고 암살당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원수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 이슬람은 현재 이란을 중심으로 세계 무슬림의 10%를 차지하는 시아파 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세계 무슬림의 90%를 차지하는 수니파로 나뉘어져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거리낌 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난 1400년이 흐르는 동안 수니파와 시아파는 자신들의 신앙과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참한 생명을 살해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라크에서 수니파인 ISIS가 시아파 무슬림을 무려 10만명 이상 살해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와 현상들을 보면서 이슬람 종교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아파와 수니파의 구별이라든지 교리와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떠나고 교리와 신학만 남아있는 종교는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거부와 비난과 조소거리가 될 뿐입니다. 신학은 보이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종교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마저도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를 아니 우리 교회들을 돌아봅시다. 세상 앞에서 있는 교회 안에서 교리는 찾을 수 있지만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둠이 감싸고 있지는 않는지 늘 조심하고 점검한다면 어둠과 아픈 우리 시대를 사랑과 생명의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사랑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기억해봅시다. 신학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이 아닌 관찮은 교사와 선지자로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들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시는 사건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지구촌의 내일을 소망하며, 살렘.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가치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밤중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다. 밤새도록 휘젓고 다녔는데 가져간 상품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모든 상품의 가격표들을 이리저리 바꿔 놓았을 뿐이었다. 500달러짜리 카메라에 5달러짜리 가격표를... 수천달러짜리 모터보트에 단 돈 100달러짜리 가격표를 바꿔치기해 놓았을 뿐이었다.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여전히 평소처럼 그 백화점은 개점을 했고 고객들은 매장에서 평범하게 쇼핑들을 했다. 오전시간이 지나 날 때까지도 직원들도, 고객들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엄청난 횡재를 한 고객도 있을 것이고, 바가지 쓴 손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무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한 채 넘어갔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묻는다면? 우리들은 보고 듣는 매일의 뉴스 속에서 얼마든지 가치 혼란의 뉴스들을 듣고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온통 사회가 가치 혼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하루도 이런 류의 뉴스가 없는 날이 없다. 국가의 임금 정보를 단 돈 몇천 달러에 팔아먹은 군사, 산업 스파이들의 뉴스가 우리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5살 난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서 죽게 만든 계부의 뉴스를 듣지 못했는가? 그것도 젊은 아빠 게임하는데 방해했다는 이유로... 12살 난 딸을 잡자리 시중에서 거역했다고 린치를 가해서 감옥에 간 짐승 같은 아빠의 뉴스를 보지 못했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도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뒤집어 놓았을까?

이것뿐만 아니다. 수십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 공들여 쌓아놓은 안정된 사회질서를

삼시간에 무너뜨리는 사이코 통치자들... 허황된 이론과 철학으로 수십억 지구인들을 비참한 절망으로 몰아넣은 영타리 사상가들...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며 대물림을 하고 있는 인면수심의 독재자들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허황된 유연비어를 만들어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싸구려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비관주의자들... 인생은 허무한 것...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세상...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의 가격표들이 이곳저곳에 마구 붙어있다. 과연 인간은 이렇게도 험악한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할까? 절대로 아니다.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인간의 몸 덩어리 하나가 대수롭게 보이는가? 값을 정할 수 없는 대단한 고가품이다.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가를 비교해보자!

자동차 한대에 대략 13,000개의 부품이, 747제트 여객기

하나에 3백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고, 우주 왕복선에는 5백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조직과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만 개의 백혈구가 있으며 심장은 하루에 6,768리터의 피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에 만 번 이상의 펌핑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 허파는 2,340번의 호흡으로 120평방미터의 산소를 마시며 1.3kg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허에는 9천 개의 미각세포가 있어서 맛과 신선도를 즉시 감별해내는 기능을 갖췄고, 눈은 10만 가지의 색을 구분할 있지만 보통은 150가지를 구별해냄으로 원근과 입체의 모양을 인식하고 분별함으로써 지각을 돕고 충동을 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인체의 핏줄은 총 길이가 12만Km로써 서울-부산 간의 거리를 133번,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다고 하니... 어찌 이런 몸이 싸구려일까? 75억의 인구 중에 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내 몸은 유일무이한 최고의 걸작품이 아닌가? 이런 고가품도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흩어 물어버려야 하는 폐기물이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또한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는 목걸이가 벼룩시장에서는 싸구려로 팔렸지만 고가품으로 둔갑을 했다? 아니다. 아무리 흠으로 돌아갈 허무한 몸이지만 그러나 그 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묻은 인생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최상, 최대, 최고의 고가품이 아닐 수가 없다.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여기에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특별한 가격표가 붙은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고귀한 몸과 생명으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스러운 참 가치관의 삶을 드러야 할 것이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노기송 목사
(뉴욕새에루살렘교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 랑하는 제자들에게 공생애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비장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必生則死),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必死則生). 특별히 앞 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함을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장의 말씀, 필생즉사, 필사즉생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자가 깊이 한번쯤은 새겨보거나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많은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 사탄의 범주에서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물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신문, 각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점수한 후의 지난 2년여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처절하고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멀쩡한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보려고 성령님에게 불침번바 되어, 목숨을 내놓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며 매장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사탄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며, 믿지도 못하는 지옥에 떨어질 무리들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거나

특별히 최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각종 범죄와 비리가 다 밝혀지고 자신이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자(레닌주의자)라고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당히 밝힌 자가 대한민국 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된 나라이니 이것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조선인민공화국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현실은 이미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

아무 말도, 표현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백성들의 삶을 토탄으로 몰아넣어 못살게 하는 일이나,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국방장관을 세워 국방을 해체하고, 제일 중요한 안보인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고, 서해 NLL을 비토하여 휴전선 일대를 다 열어주고, 세계 제일 원전 기술로 100년을 먹고 살 원전을 파괴하고

必生則死 必死則生(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마태복음 16장 25-28절

시하겠다고 공언했던 종북 좌파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2년여 동안 대한민국을 처절하게 암흑세대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 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처럼 대교회회를 목회하면서 온천하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자기만 배부르고, 평안하고,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한들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며 그때 목숨을 주겠다고 한들 때는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병어리처럼

기술자를 해외에 다 빼앗기고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백성들,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 잠잠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자신의 사건이 되어 자기도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고(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

들은 공의, 진실, 진리를 자기 사상과 이념에 안 맞으면 싫어합니다. 밥 먹듯이 쉽게 뒤집습니다. 불의 불법을 반복해도 뻔뻔스럽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도 그들은 잘 뭉칩니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 것보다 너무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동성애, 낙태나 인권을 안 지키고 목살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중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버젓이 강단에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나 참 성도가 좌파나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논쟁하는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그런 목

사나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짜임을 확신합니다. 요전에 일본 신문에 북한 김정일에게 맹세 서약한 무리들 중에 대영교회 목사들이 들어간 이유가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유명한 목사라도 종북 좌파들은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들일수록 설교도 잘하고, 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숫자로 자신을 평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물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나 지도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목사나 지도자인지 교인 자신이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서 좌파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참으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어느 나라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다 이런 저런, 크고 작은 한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한은 모두가 기준이 다릅니다. 모두 자기중심 해석이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바른 것이라고 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몰든 사람은 공산주의가 바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 자기 중심, 자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복잡한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인간세계에 참 판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 판단과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필생즉사 필사즉생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도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나 사회에서도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자세로 살아야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보수 우파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어도, 진정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보수 우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좌파나 종북을 추종하는 사람은 목사든 평신도든 모두 지옥 불에 떨어질 가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북 좌파의 뿌리는 성경을 안 믿는 무신론이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북 좌파나 지지자들은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rhokisong@yahoo.com

현명하게 대처하면 길잡이 된다!

〈2면에서 계속〉
기독교인이 인공지능과 미래를 수용할 수 있는 3가지 다른 방법:

1.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그분은 이미 미래에 계시고, 과거에도 그 미래를 알고 계셨다. 그분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놀라지 않으신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고 있는 것을 붙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가 없으며 안전함을 찾기 위해 과거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돌아볼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상기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이 과거에 신실하셨음은 우리가 그분이 미래에도 신실하

실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2.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임을 확신하기
교회는 다른 형태나 표현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 중심적이고, 문화를 주도하며, 생기 있고, 생명을 주고, 혁신적이고, 큰 생각을 하는 교회

가 되어 할 필요를 바꾸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첨단 기술적이며 첨단 접촉적이다. 우리가 기술 속으로 밀려들어가갈수록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있고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접촉적인 환경을 원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복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마음으로 복음의 창조적인 공급자로 있다면, 우리는 사회가 근원을 위해 교회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6면으로 계속〉

백부장의 사랑하는 중

로마 군대 백부장 집에 한 중이 병들어 앓아눕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은 그 중을 가리켜 백부장의 사랑하는 중이라고 표현한다. 병행본문을 보면 그 중의 병은 심한 중풍이다. 병의 심각함은, 백부장이 그 중에게 행한 것을 다른 이들이 보고 말함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열심히 의원도 부르고, 중의 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중의 병이 낫지 못한 것을 볼 때, 이미 심각한 중증이였으리라 짐작된다.

의문이 생긴다. 중은 당시에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도구적 존재인데, 백부장은 왜 그를 그렇게 '그의 사랑하는 중'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족처럼 돌보고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가 예수님에게 보낸 유대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그가 식민지 백성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준 것까지도 알게 한다. 한마디로 백부장은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백부장의 그런 친절과 사랑은 어디서 왔을

이며, 사랑 없는 평화와 온유함은 냉소를 드러낼 따름이며, 사랑 없는 기쁨은 정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적과 일상적인 은혜

기적을 보는 위대한 신앙도 있지만 일상에서 쓰임 받는 믿음의 모습들이 그렇게 사랑을 본질로 하여 삶속에 드러날 때, 참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삶이 복된 것이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죽기 전에 세 가지를 깊이 후회한다고 한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안타까워한다. 모두가 사랑에 뿌리를 둔 열매들이다.

한국을 가서 교회를 방문해보면, 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 세 가지가 유별나더라는 것이다. 기도소리, 웃음소리가 크고 밥맛이 좋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런 교회들에 대한 결론적인 마음은 '내가 거기 가서 산다면, 나 같아도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성도들의 신앙에서 흥취를 가르고,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

없는 일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목사의 양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떠나왔는데,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다.

성품, 믿음의 시금석

혹자는 성품이 좋으면 겉으로 타인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고, 천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우리의 천성은 모두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것이니, 좋은 별 차이가 없다.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맺어진 배움과 경험의 결과임을 생각하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가지는 성품의 온전한 변화는 성령 안에서 맺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저 권사님은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괴팍해.' 괴팍하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거칠고 모가 났음'을 뜻하는 표현이다. 혹은 '저 집사님은 신앙은 좋은데 말이 너무 많다'는

서 가장 분명해야 될 게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열매는 성품이 변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얼굴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온유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연한이 더해갈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게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연수가 더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에 사악함과 괴팍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계속 새로워지고 젊어진다. 당연히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수를 믿었는데 인상은 왜 바뀌지를 않는가?

사명도 성품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충성도 성품이다. 충성된 자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한다.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충성 되다는 것이 내 힘으로 충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불같이 뜨거운 세상, 믿음과 사랑

-변화의 은혜와 능력-

까? 타고났을까? 그러나 배경이 맞지 않는다. 그는 이방인이고 헬라문화와 철학적 사상 속에 자랐고, 더구나 군인이었고 할 때, 짐승 취급받던 식민지 중을 가족 같은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의 성품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과 믿음

헬라의 철학과 사상은 '용기, 힘, 싸움'이 미덕이다. 긍휼, 자비, 사랑은 연약한 자의 자기명예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게다가 군인이면 더욱 혈기왕성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을 생각하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유대 땅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 사랑과 자비를 배웠을 것'이 무우어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당연히 그런 처신과 행동이 나타날 것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배우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그런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의 변화는 무엇일까?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 없는 오래참음은 미련한 것

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세상 앞에 복된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으로서 성품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세상에서는 강한 것을 선이라 하고 무조건 이기고 보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강하고 잘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능력만 의지하다가 무너지고 만다. 반면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복을 경험하는 것을 본다. 생각을 해보자. 그가 진실로 예수 믿고 변화된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병든 중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였기에, 그 아픈 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심을 보게 된다.

선배 목사님 가운데 최선을 다해 목회를 감당하던 중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 중의 한분이 설교에 대해 자주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설교를 바꿀 것을 자주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분란의 일도 없이 조용히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다고 한다. 자녀들이 있고 생활의 염려들을 생각하면, 본인의 목회적 책임이 없는 중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결정하신 그분의 말씀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목사가 양들과 싸우며 분쟁할 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문장의 주어와 술어가 일치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의 뒤에 이와 같은 술어를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될 때에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아홉 가지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다. 이 아홉 가지를 한마디로 '성품'이라고 말한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말씀하는 그 캐릭터의 온전한 변화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린 후에 무슨 회의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민교회 가운데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회개와 회복이 필요하다.

신앙이 좋다는 것

우리 신앙이 좋다 라는 것, 내가 교회 권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그 자체의 직분에

로 충성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충성도 성령의 성품이다. 그래서 불충성하는 게으름은 성령의 충만이 결여된 성품의 약함이 되기에, 약하고 게으른 종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결국에는 참된 신앙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품에 온전한 변화를 맞본 사람이다. 변화가 무엇인가?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는 그것이 변화이다. 신앙이 변한다는 것은 변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질되는 것이다. 변질되면 악취가 난다. 변화되면 열매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데, 변질되면 악취가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

향기와 변화의 인생

변화되어 향기나면 얼마나 좋은가? 사람마다 냄새가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향기는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이다. 그래서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 젊은 집사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입에서는 잠언이 나와야 한다.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반면에 변화되어도 할 때,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이 된다. 주변에 사람이 물려오지 않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국은 법무부 장관 조국씨가 "나는 사회주의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서 시끄러운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이 왜 한국을 망치는 사상인지? 특히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왜 공존할 수 없는 사탄의 악사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디나의 전영숙 권사

A: 한경직 목사가 말한 대로 우리민족이 일제 치하로부터 1945년 8.15 해방까지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세력으로 일어난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며 그리스도교도 말살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이다. 천국이라는 아편으로 가난한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지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고 주장하며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아오지 탄광에 보내 노동하다가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정권을 수립하자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김홍도 목사의 설교집인 불기둥을 보면 "과거 북한에는 남한만큼 교회가 많았고 선전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은 교회를 모조리 파괴하였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시무하던 평양 장대현교회 터 위에는 가장 큰 김

공산주의는 마귀사상이므로 무신론, 그리스도교 말살론

일성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가증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에 성공하여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말살정책이 추진되었다. 기독교의 유신론과 공산주의의 무신론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오늘날 자유주의 목사들이 공산당, 사탄의 무리들에게 달러(dollar)를 보따리 채 갖다 주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합리화 시킨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을 주도한 공산주의의 원조인 레닌(Vladimir Lenin 1870-1924)은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물론이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종속되어 물질 이상의 것에 대한 감성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에 대해 물이해합니다. "종교는 자본주의의 결과로 생겨진 생활고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그러므로 종교는 아편과 같다. 게으른 부르주아의 잠꼬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로 생활고가 없어지면 종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레닌은 "모든 신개념은 말할 수 없는 악이다. 또한 종교는 가장 위험하고 지긋지긋한 전염병이다. 종교는 일종의 정신병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불행이 물질의 공핍과 불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주장하나 성경의 기독교는 인류불행의 원인이 물질부족이나 불공평한 분배 때문이 아니라 죄에서 찾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는 프락치를 심어 1980년 초부터 주사파 사상을 대학생들에게 세뇌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을 아버지로 섬기는 김일성주의자로서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북한위주의 공산통일을 이룩한다는 사상입니다. 아직도 주사파에서 전향을 안한 80년 초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 18명이 현재 청와대에 포진하여 대통령 참모로 정책을 논하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방향으로 몰고 가니 나라가 총체적으로 난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에, 전도의 기회도 없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따름이 된다.

불같이 뜨거운 세상

세상이 불같이 뜨겁다. 분노하고, 파괴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 없는 인내와 사랑 없는 평화 속에서 냉소와 미련스러움이 우리를 달구어 가는 것을 본다. 결국 모두가 무너지고 깨어지며 파괴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이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심을 초청하자. 주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리라. 세상을 변화시킬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리라.

아무리 거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성령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 한없이 부드러워지게 된다. 관용하고 이해하고 아름다운 예수 향기를 전하게 된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가? 아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성령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이가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리움을 받고 그나마 성도라는 이름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말레이시아의 비사야족

말레이시아 비사야족은 브르나이만 북쪽해변을 따라 사바(sabah)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부르나이만을 관통하는 강 사라왁(sarawak)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림방강(limbang river)의 중심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 "중심종족" 내지는 "강의종족"이라고 불린다.



실 어떤 사람들은 비사야-두선으로 구획 지어져야 한다고 믿기도 한다. 비사야족의 언어는 아스트로네시아 언어 그룹에 있는 북인도네시아어에 속한다. 말레이시아의 14,300명의 비사야족은 많은 말레이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 말레이족들은 비사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들소와 보트와 해산물과 말레이의 의료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그들을 둘러싼 종족들로부터 몇몇 풍속을 빌려오긴 했어도 이슬람교도 비사야 종족은 그 풍속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삶의 모습

비사야족은 기본적으로 쌀 농사를 주로 짓는 농부들이다. 고추와 옥수수, 오이, 호박, 가지 그리고 다른 채소도 재배한다. 바나나와 코코넛, 빵나무 등의 과일도 있다. 멧돼지와 사슴 꿩고기 못지않게 생선은 이들 종족에게 중요한 음식 중 하나로 취급된다. 여성들은 음식과 의료, 나무에서 추출된 수액 등의 정글생산물과 식물들을 채집한다. 비사야 마을은 강둑을 따라 위치하며 많은 곡물창고들을 갖고 있다. 순수 비사야 마을은 "long house"의 일종인 2개 내지 그 이상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각형의 구조물은 땅위로 10-15피트 굽기의 말뚝(지주)위에 세워진다. 각각의 사각형 구조물들은 손님을 맞거나 주요행사를 치르는 베란다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통하우스들은 또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4개 이상 되는 방들을 포함한다. 통하우스의 기본 구성원들은 집수리와 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주요 종교의식들을 공유한다. 그들이 그룹으로 행동하지 않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 각각의 방의 친밀한 가족구성원들은 모든 자원과 공의 건강과 종교의식 그리고 곡식을 위한 기도 등을 공유하고 있다. 비사야족의 결혼은 흔히 자녀들이 매우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록 부유한 계층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직 한 여성과 결혼한다. 결혼에 의해서 부부는 그들의 부모들 중 한쪽(시댁 or 처가)의 같은 집으로 옮겨가거나 부모의 가까운 친척집으로 이사를 한다. 첫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부부는 그들만의 집을 가질 수 있다. 이혼은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이든 요구에 의해 쉽게

성립되며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 둘 중에 선택권을 가진다. 비사야족은 일년 중 다양한 축하의식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농업축제의식은 수확기의 "temorok"인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음식들을 제공한다. "makan selamat"라는 의식은 말레이인들과 함께 공유되는 축제(연회)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전염병이 그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베풀어진다. 신앙 대부분의 비사야족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특성과 믿음을 고수하는 이슬람교도들이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유일신인 알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의무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것과 금식과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을 베푸는 것을 포함한다. 약 9%의 비사야족들은 사

이 아닌 물건에 영이 깃들었다고 믿는 정령숭배자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공중의 의식 가운데 나타나고 더불어 강의 신, 호랑이신, 그리고 하늘의 신들 또한 그들의 믿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dukun'은 마녀의사로 활동한다. 영매는 공중의식에서 몽환의 경지로 사람들을 치료하곤 한다. 비사야의 질병에 대한 믿음은 "영혼의 손실"에 의해 초래된다고 하고, 따라서 영매의 역할은 영혼을 회복하는데 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들은 태양 뒤에 존재하는 7개의 마을로 간다는 믿음이 있다.

필요로 하는 것

비사야족들은 기독교적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없고 그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복음적인 도구로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국무부 "북미당국자 일주일 내 만날 계획"

미국 국무부가 북미간 실무협상이 일주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건 오태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오후 4일 예비접촉을 거쳐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최선외무성 제1부상의 발표에 대해 "나는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회담에 대해 공유할 추가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최 제1부상은 이날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후 98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이 비핵화 행동과 상응 조치를 둘러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원 받는 아동이 후원자 선택

국제월드비전이 기존의 아동후원 방식을 바꿔, 후원받는 아동이 자신의 후원자를 직접 선택하고 있다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 보도했다. 월드비전을 포함해 비정부기구(NGO)들은 후원자가 아동을 선택하거나 NGO가 연결해주는 방식을 택해왔다.



30일 CT에 따르면 미국 월드비전은 과테말라 후원 아동 1000명에게 인디애나주의 한 대형교회 소속 후원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월드비전은 후원아동이 후원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초우준(chosen-선택된)'이라 부른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환"이라고 밝혔다. 초우준은 후원자들의 사진을 찍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진은 후원아동이 살고 있는 나라의 월드비전 지부로 보내지며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후원자들의 사진을 전시한다. 후원아동들은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잠재적 후원자를 고른

다. 후원자들은 나중에 자신이 아동들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알게 된다.

에드가 샌드벌 미국 월드비전 회장은 "초우준의 목적은 후원아동들에게 자율권을 주어 그들이 후원받는 동안 많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단하지만 신선한 방식으로 아동후원을 전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월드비전과 협력하는 인디애나주와 캔터키주 교회들이 초우준에 동참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엔 케냐 음발라 아동 430명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 후원자들을 선택할 예정이 다.

샌드벌 회장은 "후원자와 후원아동의 관계가 각별해지고 있다. 후원자들도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美한인부부 억만장자 성공신화 '포에버21' 파산신청

한인의 '아메리카 드림' 신화를 썼던 의류회사 '포에버21'가 파산신청을 했다. 이민자로서 접시닦기, 주유소 종업원 등을 해가며 시작한 옷가게를 세계적인 의류회사로 만들며 미국 100대 부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파산의 길을 밟게 됐다.



로이터통신, 미국 CNN방송 등은 29일 포에버 21이 이날 파산보호(chapter11)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800여개 점포 중 178곳을 폐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선 "국내 매장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만 "상당 수 점포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영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미국 내 주요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포에버21은 '영원한 21세를 위한 옷'이라는 뜻으로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간 한국인 장도원·장진숙 부부가 설립했다. 이들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피계로아 거리에 '패션 21'이라는 첫 의류판매점을 열었다. 약 25평의 작은 매장으로 시작한 옷가게는 이후 나중에 세계 40여개 나라에서 800곳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의 5대 의류회사로 성장했다. 회사는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백화점이나 단일 브랜드보다 빨리 최신 유행을 도입하면서 저가의류를 쫓은 주기로, 대량 생산·판매하는 '패스트 패션' 전략으로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었다.

특히 옷가게 밀전을 마련하기 위해 장씨 부

부는 경비와 주유소 직원, 커피숍 직원으로 3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대열 합류하며 미주 한인 최초로 미국 100대 부자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높은 부채수준과 임대료로 전통 유통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패스트패션과 가속화된 공급체인의 결합은 소매업자가 트렌드를 잘못 읽고 여러 개의 트렌드 사이클을 놓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

베이징은 국경절 축제무드...홍콩선 애도시위

중국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축 행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올해 국경절 행사에 신경을 쏟아왔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국경절을 경사가 아니라 '애도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해 '갈라진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 주석은 열사 기념일을 맞아 30일 오전 지도부와 함께 천안문 광장에서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헌화식을 갖고 선열을 추모했다. 시 주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한 뒤 열사 기념탑을 둘러봤다. 시진핑 지도부는 신중국 창건을 이끈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기념관도 방문해 참배했다.

시 주석과 지도부는 전날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신중국 70주년 국가 훈장 및 국가 명예 칭호 대상자 42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쿠바 공산당 총서기인 라울 카스트로에게도 우호 훈장을 수여했다. 시 주석은 시상식에서 "영웅을 존경해야 영웅이 생기고 영웅이 되려고 경쟁해야 영웅이 배출된다"며 "충성은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신념을 고수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국 건국 70주년인 1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과 시민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열병식에는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장병 1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각종 군용기 160여대, 군사 장비 580대가 동원된다. 사거리가 1만2000-1만5000km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평-41이나 신형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건국 70주년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의 생존기간을 뛰어넘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소련 공산당은 1922년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USSR) 출범 후 1991년 소련 붕괴 때까지 69년 동안 집권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70년간 중국을 통치해왔다.

시 주석은 홍콩 시위 장기화를 의식한 듯 홍콩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 시 주석은 건국 70주년 초대회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재차 강조

하며 "홍콩과 마카오는 애국심 넘치는 동포들의 노력에 힘입어 반드시 조국과 함께 발전, 진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완전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체가 국경절 축제에 떠들썩하지만 홍콩에서는 대규모 '애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국경절 오후 2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홍콩 도심 센트럴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경절에 대해 천안문 민주화 시위 희생자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등 지난 70년간 중국에서 탄압받고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애도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인권전선은 홍콩 시민들에게 국경절에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자고 제안했다.

홍콩 시위대는 1일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국경은 없다, 국산만 있다'는 주제로 행진을 하고, 침사추이 지역에서는 검은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홍콩 13개 대학 총학생회 등의 주도도 1일부터 '3과 운동'도 진행된다. 3과 운동은 파공(罷工·파업), 파과(罷課·동맹휴학), 파매(罷買·불매운동)를 가리킨다. 200여개 중학교 학생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BBC가 소개한 한국의 단어 '꼰대'

영국 공영방송 BBC에 우리나라 은어인 '꼰대'가 소개됐다.



BBC 채널 중 하나인 BBC Two는 24일 공식 페이스북에 한국 단어인 '꼰대'(KKONDAE)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했다. 이 코너는 세계적으로 흥미를 끌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매일 하나씩 골라 소개한다. 지난해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 '소확행'이 선정됐었다.

BBC Two는 '꼰대'라는 단어에 대해 "자신은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Do you know someone like this?)"라고 썼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 게시글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댓글로 공감을 드러냈다. 또 자신이 겪은 '꼰대'와의 일화를 소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앞서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단어를 소개한 적 있다. 지난 5월 '거들먹거리'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뜻의 한국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한 매체는 '꼰대'를 '젊은 사람들로 부터 당연한 복종을 기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하는 비판은 재빠르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나이와 성, 경력에 따라 직장 내 위계질서가 약명 높다"며 "최근 젊은 세대들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현명하게 대처하면 길잡이 된다!

(4면에서 계속)

3.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기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달리지 않았던 사람들과 달을지, 우리가 어떻게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지,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어갈지 꿈꾸라. 이것을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지능 채팅 봇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지능 채팅 봇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문자메시지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완

성 기능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자동완성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구글맵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알게 된다. 사람들이 인공

지능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미래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그것을 잡고 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공포와 믿음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

는지 선택한 것의 열매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종결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서기에, 용기 있고 당당하게 미래를 신나게 마주하자.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3. 갈홍기(1906-1989)

갈홍기(葛弘基)는 1906년에 기독교 교육자 가정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강형대는 항일 운동가였던 이동휘와 함께 강화 보창학교와 통진 분양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에 종사했다. 갈홍기는 4월 14일에 태어났다고도 하고 6월 1일에 태어났다고도 하는데 그의 출생지도 인천 또는 강화도로 소개된다. 배재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갈홍기는 1928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했다. 연희를 졸업한 그해 7월 6일 김관식을 단장으로 한 20여 명의 주일학교 대표단의 일원으로 도미했으나 그의 목적은 유학이었다. 그는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개렛신학교에 입학했다.

침실 하나 이 거주비를 냈다 해 주었다 언제나 바쁜 쪽으로 보냈던 지면로 봄부터 천 씨가 심을 대신 했는 데 한 그릇당 50센트였다.



갈홍기 목사

담임목사 선택이 곤란하여지자 1931년 2월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이사부는 이사부 부장 염광섭을 임시

갈홍기에 따르면 “언어장벽 및 인종 차별뿐 아니라 이역에서의 보장 없는 생활 타개를 위하여 한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였는데 그들의 공동생활에 유일의 중심인 교회가 이들에게 바로 이 정신적인 힘을 제공하여 현실에서 부닥치는 모든 장애물과 저항요소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이바지한 최대의 업적이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취업이 엄격히 규제된 상황에서 김 경, 강영소, 천세현, 박 필 등 본 교회 교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요리사, 웨이터, 잡역 등의 일자리를 구하여 고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당의 침실이나 교인이 경영하는 식당 부엌구석의 감자포대 위에서 잠을 자며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교포의 취직 및 정보교환의 중심이어서 1930년대에 최세창, 한장호, 임 초 등이 교회를 통하여 사업정보를 나누었고 사업체를 인수하였다.

1931년 12월 31일에 송구영신을 맞아 그날 저녁에 모인 자리에서 특별히 만주병란 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덮을 것이 없어서 추위와 죽음을 무릅쓰고 해매는 동포들을 생각하고 동정금을 거두었는데 교인들이 현금한 돈은 10달러 7센트였다. 그리고 김 경, 황보익준, 천세현, 하희옥, 강정근, 강영성, 염광섭, 오한수, 이선두, 이보만, 나재원, 변준호, 정한경, 현

이 문을 연 후 매주 일요일 오후에 학자와 정치가 등 유명 인사들의 강좌에 이어 토론하고 만찬을 나누었는데 본 교회는 이 일요일 만찬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마련하고 한국을 알려 독립운동을 위해 찬조를 받을 목적을 계획했다. 첫 프로그램에 ‘초가집’의 저자였던 뉴욕주립대학교 영문학과 강영일 교수를 초청했다. 그 후 본 교회에 출석하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말의 ‘인터내셔널 나잇’ 행사를 마련하고 한국을 알리는 기회를 추가했다.

1932년 7월에 제14회 북미한인유학생 대회가 있었다. 제3일이 되던 그달 10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카고한인감리교회에서 유학생 중서부연회 주최로 주일예배가 있었다. 본 교회 목회자인 갈홍기의 사회로 한국에서 방문한 김창세 박사가 설교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고, 김메세가 특별 찬송을 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그해 갈홍기는 북미한인유학생회의 총회 회장으로 선정되었다.

1932년 7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 끝에 교인대회를 개최하고 일반 사무처리와 금후 교회발전책을 논의한 후 몇 가지 결의하였다. 김지수, 하희옥, 천세현, 나재원, 배동선, 장세운, 김경, 강영소 그리고 염광섭을 이사로 선정하였고, 갈홍기 목사를 재임토록 결의했고, 평신도 대표로 염광섭과 김매세를 선임했으며, 전형위원으로 염광섭, 윤기성 그리고 나재원을 선택했고, 교회 사찰로 천세현이 재임토

리원으로는 나재원, 하희옥, 김 경, 예배위원으로 강혜림, 김메세, 장세운, 배민수, 염광섭, 음악부장은 김메세, 엠넷청년회장은 강혜림, 평신도 대표는 김메세, 염광섭이었다.

갈홍기는 박사학위 공부와 국제학 생회 업무 등 여러 가지로 분방하여 1932년 10월 23일 주일 시카고한인 감리교회 목사직을 사면했다. 그는 약 1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한 셈이다. 이듬해 2월 전경무를 전임 전도사로 청빙하고, 이에 신구 목사의 이취임식이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예배당 사교실에서 5, 60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김 경의 사회로 개최하고 ‘우리 교회가 갈홍기 목사의 과거의 정신적 물질적 충실한 교역을 항상 기억할 것이며 더욱이 새로 취임하신 전경무 전도사와 만사에 협동하여 시카고 교회가 특별히 기독교의 사랑과 자유와 평등주의와 인권보존 등을 발휘하도록 노력하여 우리 한인교회와 사회에만 행복을 보급할 뿐 아니라 온 인류 사회의 행복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말로 김 경이 사회사를 대신 했다.

교회 이사장 장세운의 가슴이 터지는 송백사와 환영사에 이어 염광섭과 배민수와 백인 김 씨 및 전경무 부인 등의 간단한 감상담이 있는 다음에 갈홍기 목사의 고별사가 있었다. 갈홍기는 그의 고별사에서 특별히 국가와 교회의 분치학작운동과 경제운동과 사회운동과 혁명운동을 우리 한인 교인들은 각각 의무분담원칙에 의하여 충실히 하되 국가가 종교보다 근본적 정치 사회 집단권력 기관이 되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선교수첩’에는 1934년 6월까지라고 적혀있어 갈홍기가 담임목사로 사퇴한 후 설교 등으로 교회를 섬겼을 것이다. 1933년 최경식이 소천했을 때 갈홍기가 장례식을 주례하면서 그의 교회 섬김을 보게 된다. 최경식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과정에 있었다. 그의 죽음은 이곳 한인사회의 최초의 장례로 꼽혔다.

귀국

갈홍기는 1934년 6월 본 대학을 졸업하고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직후 귀국했다. 그는 그해 모교인 연희전문 학교 교수가 되었고, 1939년 이후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에서 목회도 하였다. 일제말기 기독교의 일본화를 논하고 학병지원을 권유하기도 했다. 해방 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주일대표부 참사관, 외무부 차관, 주말레이저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은퇴한 그는 도미하여 1989년 8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소천했다.

damien.sohn@gmail.com

1931년 미북감리교가 시카고한인감리교회 목사 파송 1년 재직 학위취득 후 1934년 귀국 교수직, 일제말 기독교 일본화 추진

담임교역자로 선정하였고, 행정부를 신설하고 6개 분과를 조직했다. 갈홍기는 전도부 부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됐고, 설교자로 지정된 것이다.

시카고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

갈홍기는 1931년 6월 개렛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해 가을에 그는 시카고대학 신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1931년 7월 미국 북감리교는 갈홍기를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목사로 파송했고, 그달 19일에 성대한 취임식이 있었다. 한승곤 목사에 이어 그는 본 교회 제2대 목사가 되었다. 본 교회 초기 예배자 수가 20여 명이었는데 반해 그 두 배가 넘는 평균 50여 명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목사 사례비는 월 40달러였으나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모른다. 그가 목회하는 동안 김인준과 장세운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철, 배민수, 배동선, 윤 립, 윤기성, 강영문, 강영대, 김명선, 김경찬, 김지수, 위혜진, 장세운, 김태선, 김봉성, 홍난파, 갈홍기, 이재백, 오영철, 박태현, 이병권 등이 총 53달러 7센트를 따로 만주 동포를 위하여 헌금했다. 위의 한인 명단은 대부분이 시카고한인감리교회 교인이었다.

1932년 3월 삼일절 기념식은 배동선의 사회로 시작됐다. 목회자였던 갈홍기는 기도와 촌감의 순서를 맡았다. 그날 순서는 갈홍기가 기도한 후 국기경례, 애국가 합창, 배동선의 식사, 김봉성의 선인시 낭독, 만세삼창, 김메세와 윤기성의 합창, 홍영후의 연설, 묵도, 갈홍기와 장세운의 촌감 그리고 광고에 이어 폐회했다. 촌감을 맡은 갈홍기는 삼일절의 의의와 역사적 유래 그리고 그에 대한 구명동이 있어 장래 어떠한 관련으로 삼일절을 지킬 것을 간단하면서 조리 있게 소감을 말하였다.

1932년 시카고대학 인터내셔널 홀

록 하였으며, 새해 제정예산은 이사회에 위임했다.

그해 9월 29일자의 ‘신한민보’에서 시카고한인감리교회의 갈홍기 목사에 대한 근황을 듣는다. “시카고한인 교회의 목사요 시카고대학에서 사회 철학학위를 위하여 연구하며 더욱이 장래 우리 사회의 유망한 혁명청년 중에 하나인 갈홍기씨가 인터네셔널 하우스에서 사무를 집행하게 되었다. 갈홍기씨의 민첩하고 진정한 활동의 결과 수십인 한인학생들이 국제 회관에서 무료로 기숙하게 되었다. 그런 동시에 국제적 회합이 매일이라고 한다. 장래 우리 한인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대우가 있으리라고 한다... 특별히 갈홍기씨는 청년목사인 동시에 경제적 불경기로 인하여 물질적 부조를 불고하고 희생적 교역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교역기간 교인이 증가되어 행정부를 조직을 보강했다. 윤기성 서기, 김지수 재무 외에 가옥 관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2편 실낙원(상)

그리스도인 중에는 실낙원을 통해 주님께 인도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작품을 복음과 연결시킴으로 회심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결과와 밀턴의 의식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 작품이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영국 르네상스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위대한 문학성 이상, 성경적이고 영적인 교훈의 우수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 및 도덕적 경험에 다리를 놓음으로서 경건한 감정을 일깨우고 이 작품에 동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저자소개

저자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은 영국 역사상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두 번째 위대한 작가로 간주되며, 신학자 어거스틴 스트롱(Augustine Strong)이 지적한 것처럼, "청교도 중의 청교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영국 종교개혁을 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전형적인 영어권 시인으로서 영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독교 시인이다. 17세기 청교도 혁명 당시 그가 맡았던 공적인 역할 때문에 밀턴은 중요한 청교도 인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의 아버지 존은 청년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경건하였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과 더불어 밀턴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법학교 가운데 하나이며 한 세기 동안 기독교 인문주의의 아성인 세인트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저하게 청교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학교는 17세기 초엽 청교도 교육을 가장 철저히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였다.

그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청교도에 대한 확신이 더욱 견

고해지는 만큼, 영국 국교회에 큰 반감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죽어버린 교회"를 보며, 영국교회의 분열과 부패에 회의를 느끼면서 시인의 길을 택했다. 그는 생애 중반기에 청교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始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20년의 휴지기 중간에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밀턴은 가장 위대한 단시 '내 빛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생각할 때'를 쓰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 20년 기간 동안 그는 올리버 크롬웰의 라틴어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적 유명세를 가졌다. 그는 청교도 주장을 대변하는 논쟁적인 산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 일부는 찰스 1세의 처형을 옹호하는 내용이며, 또한 교회의 분열과 통지와 같은 주제에 대한 청교도의 일반적인

문학성 이상, 성경적 영적 교훈의 우수성 지닌 청교도 고전 타락을 이야기 기초자료로 취한 서사시...인류 역사에 영향

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었다.

1660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자 그는 다른 청교도들처럼 숨어 살아야 했고, 그동안에 '실낙원'을 저술했다. 그의 신앙 때문에, 잠시 런던타워에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의 생애 말년은 평안한 가운데 문학작업에 매진한 시기였다. 말년에 실명과 실의 속에서 집필한 이 실낙원은 인간의 원죄를 다루는 대서사시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집필한 '복낙원'과 '투사 삼손'은 또 다른 그의 걸작으로 유명하다.

2. 실낙원에 대한 조명

모든 면에서 청교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타락을 이야기의 기초 자료로 취하고 있는 서사시로서 인류 역사 전체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다.

1)실낙원의 기본 개요

(1)사탄이 타락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천상의 삶 (2)사탄과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의 타락, (3)세상 창조 (4)타락하기 전 낙원에서 인류의 삶 (5)아담과 하와의 타락 (6)잠재적인 타락과 구속의 역사로 이원화된 인류 타락의 역사 (7)역사의 중

말 (8)영원히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전개의 단계는 완전 무구 상태에서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본성의 네 가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기법과 묘사

그는 서사시의 기법에 따라 본래의 연대 순서를 재배치했다. 플롯(plot) 곧 행동이 벌어지는 사건들의 순서, 곧 실낙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묘사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사탄은 지옥에 떨어져 활활 타오르는 불바다 속에서 9일간을 지내다가 깨어난다. 천국에 있을 때의 영광과 지옥에서의 굴욕을 되짚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보복을 결심하게 된다.

(1)지옥에서 나온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천국에서 추방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데(1권), 회의를 통해 세운 계획은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 낙원으로 사탄을 보내는 것이다(2권). (2)이에 대응하는 천상의 회의에서, 성부와 성자는 임박한 인류의 타락에 대해 숙고하십시오. 성자가 인류의 구속을 책임질 것을 말씀한다. (3)사탄이 낙원에 도착하자, 완전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살고 있다(3권).

(4)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려고 라파엘을 파송하고(4권), 그 방문기간에 라파엘은 두 가지 회상장면 곧 천상에서의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이야기와 하나님의 세상 창조이야기를 제공한다(7-8권). (5)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고(9권)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낙원을 상실한다(9권). (6)하나님은 미가엘을 파송한다(11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끄는 천사군대와 사탄의 군사들이 격전을 벌여, 사탄의 세력은 일단 패하지만 다시 쳐들어온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자 메시아를 보내어 사탄의 군사는 심연의 구렁으로 떨어진다. 나중에 사탄과 그의 무리는 영원한 지옥 속에 빠진다(10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류의 장래 역사에 대한 환상 곧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맞춘 환상을 보여준다. (7)미가엘은 에덴으로 내려가 아담과 하와의 추방을 선언한다(11권). 미가엘은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구세주의 탄생, 죽음, 부활 등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낙원 밖으로 내어 보내는데(12권), 아담과 하와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동산을 떠난다.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끝없는 부모 역할

오래 전에 자녀양육 세미나를 인도할 때 어느 아빠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니까 본인도 결혼을 했고 또 어찌 다 보니 아기를 낳아서 아빠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모역할을 감당할지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자녀양육 세미나를 인도할 때 결혼도 안한 청년이 미리 강의를 듣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싶다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기특한 경우도 가끔 있었다.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미리 준비를 하든지 열떨결에 부모가 되어 어쩔 줄을 모르든지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자녀가 영유아기, 소년기, 사춘기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면 일단은 줄어든다. 그러나 양육의 역할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해도 지도차원에서의 부모역할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요즈음은 성인의 역할을 하는 연령이 30세 정도로 늦추어졌다고 한다. 많은 자녀들이 대학원을 가고 또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독립하게 되는 나이가 늦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대학졸업 후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증가 추세여서 어느 연구에 따르면 대학졸업 후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이 85%에 다다른다고 한다. 그 중에 일부 자녀들은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일정기간을 부모의 집에 머무를 계획을 하고 들어오지만 또 다른 자녀들은 확실한 대책 없이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우리 세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한 후 최소한 2년에서 6년을 다시 집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대학원을 갈 때까지 시간을 보냈고 또 집에 들어와서 직장을 다니기도 했다. 요즈음에는 이혼한 자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예전 같으면 독립을 하고도 남았을 나이의 성인이 된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 한 집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독립해서 자주 만날 일이 없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더 거워지기도 하지만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성인자녀를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처럼 대하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로 잘 알려진 게리 채프만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과잉보호다. 부모가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대학에 가서도 기본적인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부모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인격이 형성된 사실을 잊고 자녀를 과잉보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의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다.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어떻게 채울지 모르며 너무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성인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진로문제, 학교선택 등 많은 일에 부모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부모들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지나친 관여를 하는 경우다. 자녀들의 일에 깊이 관심을 보이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독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적인 행동을 하면 서운하게 느끼기도 한다. 많은 부모들이 결혼한 자녀의 삶에까지 간섭하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이 세 가지 함정을 생각해보며 나는 과연 어느 부분에 연약한 엄마일까 생각해보았다. 아이들이 이미 서른이 다 넘었지만 겨울에 반바지를 입으면 "감기 걸리겠다. 바지 긴 것 입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과잉보호 엄마다. 바쁘게 산다고 아이들이 진로 결정할 때 도움도 별로 못준 것 보면 자녀의 일에 관여하지 않은 엄마도 된다. 또 괜찮다고 하는데도 집에 다니러온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굳이 싸 보내야 마음이 편한 것 보면 지나친 관여를 하는 엄마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끝없는 부모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lpyun@apu.edu



목회서신

말의 순화(純化)

죽어서 지옥행 티켓을 끊는 말은 하지 말자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몇년전 미주에서 최대 교단인 한인 총회장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성난 얼굴로 욕하고 삿대질하는 모습과 결국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2개의 총회로 양분되었다는 신문의 기사를 보고, 잠을 수 없는 의분을 느꼈습니다. 소위 종교지도자라고,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자칭하는 목사, 장로들의 싸우는 모습이 시장 잡배보다도 못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두 총회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거짓과 위선의 잘못된 집단임을

느꼈습니다. 요즘 YouTube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많은 간증을 보게 되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유명한 목사가 지옥에 많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년센스 유머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목사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사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실까 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들이 감투욕, 명예욕이 많았으면, 이런 웃지 못할 유머까지 나왔을까 생각하니, 낯 뜨겁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인간들이 죽어서 저승을 가면 열라대왕을 만난다고 합니다. 열라대왕은 발설(拔舌)지옥을 관장 하는데, '발설'은 '혀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혀를 뽑는 고통을 주는 지옥이니, 분명 말로 인한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고통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외는 주기도문처럼, 불교

신자들이 외는 염불주문인, '천수경(千手經)'에 보면 (1)생명을 죽이는 살생(殺生) (2)도둑질하는 투도(偷盜) (3)사악하고 음탕한 마음을 먹는 사음(邪淫) (4)거짓말하는 망어(妄語) (5)꾸며서 말하는 기어(誑語) (6)남을 이간질하는 양설(兩舌) (7)험한 말을 하는 악구(惡口) (8)탐욕스러운 탐애(貪愛) (9)성을 내고 화를 드러내는 진애(瞋毒) (10)어리석어 사리분간을 못하는 치암(痴暗)을 '열가지 악한 죄(십악:十惡)'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천수경에 비취볼 때, 난투극을 벌여 총회장을 아수라장(阿修羅場)으로 만든 자들은 꾸며진 거짓말로 남을 이간질하며 험한 말을 했으니 망어, 기어, 양설, 악구로 말로 인한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여러 사람을 실족케 했으니 살생을 한 것이고, 사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 감투를 탐하여 흠쳤으니 사음과 탐애와 투도의 죄를 범하였고,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성을 내며 헐기를 부렸으니 치암과 진애의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십악을 다 지음과 같습니다. 이같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음탕한 마음을 먹는 사음(邪淫)은 지옥행 티켓을 받기 전에 대오각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천수경에서 말하는 십악(十惡) 중에서 4가지 즉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말로 인한 죄입니다. 그만큼 말이란 남에게 상처주기도 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기도 쉬우며,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3:2)고 했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고 했으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약3:10)고도 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권면하셨

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각 사람에게 방언(Tongues)이 임했듯이(행2:4, 고전12:10, 14:4),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Born Again) 되면 제일 먼저 말의 순화(純化, Purification)가 일어나게 됩니다. 험담, 악담, 비방, 정죄, 참소, 아침(아부), 거짓말, 불평, 원망하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 축복, 칭찬, 위로, 격려, 간증, 고백하는 긍정적인 신앙적인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되는 말만 해야 합니다(엡4:29, 잠16:24). 죽어서 지옥행 티켓을 끊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12:36-37).



PCUSA 2019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다시 꿈을 꾸자 나와 나 그리고 우리'

PCUSA한인총회 2019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미국장로교(PCUSA) 한인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 엄재용 집사) 주최 2019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가 '다시 꿈을 꾸자 나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열렸다.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찬양팀 찬양인도와 신일장로교회 찬양대 찬양으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순서는 "창의적인 교회"(막 2:1-12)라는 주제로 허봉기 목사(찬양교회)가 주제 강의를 했다. 허봉기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분량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기는 것이 어려워진 시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매력이 없어졌으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세상 사람들의 시

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교회가 매력이 없는 곳이 됐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조금도 궁금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하셔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며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정말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정말 제자이며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야 한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건 나를 따르는 제자가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은 변화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는 것은 95%의 실패할 위험을 감수

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교회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무난하게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 결과 교회는 노력화됐으며 앉아서 망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제 강의를 이어 위크샵이 열렸다. 위크샵은 송진우 목사(포트웨인 한마음장로교회)가 '같은, 더한, 다른(마20:25-27)', 이은경 교수(아주사피사피대학교)가 '시편에 나타난 나와 나', 최정석 목사(총회사무국 한국어 공의회 지원담당 부서기)가 '맛보기 헌법 이해와 사용', 김인기 목사(올랜도비전교회)가 '영성 vs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를 했다. 이날 오전에는 박성주 목사(NCKC 사무총장)가 '미국장로교 NCKPC 복음의 빛'이란 주제로 오후에는 김인기 목사가 'In it, Not of it'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했다. 한편 첫날 오후 주제 강의를 허봉기 목사가 '대안공동체(행 2:43-4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허봉기 목사는 "바벨론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법(단 6:10-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2020비전컨퍼런스는 2020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위클리 이전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웨슬리언연합회 하나로 묶는데 최선

크리스천위클리 이전 감사예배

크리스천위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조명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장) 기도, 한기형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설교로 진행됐다. 한기형 목사는 '기독언론의 사명'(사52:7)이란 제목으로 "바벨론포로에서의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본문처럼 힘들고 어려운 교계와 한국의 어려운 시대는 주의 복음만이 소

망에 갇게 한다. 위클리 사역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이 돼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사역이 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한편 조명환 목사는 17년 전 창간호를 보이며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더욱더 분발해 언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지난 17년 동안 부족하나마 웨슬리언연합회를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신문을 중심으로 성지순례 문화정착과 쓴소리 단소리를 10년 동안 게재하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상파울로까지 보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위클리는 2002년 10월에 창간돼 매주 발행되고 있으며 성지순례 문화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현 사무실은 621 Virgil Ave #260 LA, CA 90005에 소재하며 전화번호는 (818)624-2190. <이성자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콜롬비아 후원 회원당 5백 달러씩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종명 목사) 9월 정기예배가 지난 25일 뉴욕 에bene셀션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전희수 목사(상임고문) 인도로 기도 박진하 목사(상임고문), 설교 최창섭 목사(자문위원), 합심기도 인도 권케더린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참 목자 상"(속11:4-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리처드 벡스터의 저서 '참 목자상'을 보면 목회본질, 목회태도, 목회동기 등에 대해 쓰고 있는데, 목회 주요과제는

'영혼 구원'으로 거짓목자와 참 목자, 두 목자를 소개하고 있다"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참 목자는 첫째, 양떼를 붙잡아 여기는 자 둘째, 양떼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자 셋째, 은총과 연합의 사명을 다하는 자"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본문의 세 목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하는데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꺾임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며 "당시 참 목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고 복된 삶

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했다"고 말했다. 최창섭 목사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회는 목사의 희생이 없이는 바로 세워질 수 없다. 나는 참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를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헤쳐 나가자"고 격려했다. 2부 회무는 이종명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박이스라엘 목사의 사역보고, 권케더린 목사의 광고, 한준희 목사의 폐회 기도도 마쳤다. 이날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원주민선교 후원 동영상을 배부했으며, 후원비 1만 달러 중 남은 금액 7천 달러는 회원들이 5백 달러씩 모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달 모임에서 보고한 △정관개정(1조 명칭 수정, 4조 회장임기 1년)을 통과시켰으며 △사무총장제 도입 △선교사 파송선학고 설립 △간사 거취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10월 월세모임은 30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게셋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단비기독교TV,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CA지역 런칭과 새 이사장 취임

단비기독교TV,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

단비기독교TV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가 9월 29일 오후 5시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LA와 캘리포니아 지역 런칭과 새 이사장 취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1부 예배는 김성국 목사(단비TV부이사장, 퀸즈장로교회) 인도로 설교는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가 신명기 32장 이름을 'Sweet rain'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적절한 때 내리니 기쁨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단 하나의 비'라는 의미로 지난 5년 동안 오직 그 진실 하 나로 어려움을 극복한 정상교 사장과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단비 같

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단비TV가 되길 축원 한다"고 설교했다. 경배와 찬양은 프라미스교회 경배찬양팀, 기도 이학열 안수 집사(후원회장),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시어스의 찬양이 있었다. 2부 축하행사에서는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가 "단비TV의 LA진출은 단순히 뉴욕 플러스 LA라는 산술적 의미만이 아니라 미 전역을 커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또한 작은 셋톱박스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넘어 멀리 남아 글로벌방송으로 진출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허연행 목사는 모든 결실을 이전 이사장들과 실무진들에게 돌리며 "우리와 다음세대 삶의

양식 전반을 바꾸고 있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의 사명과 임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LA 진출을 계기로 단비TV가 젊은 층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콘텐츠와 플랫폼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 한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정상교 사장은 "뜻밖의 이사후원이 많이 이뤄져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최선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감사사를 전한 후 셋톱박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졌다. 김아라 단비TV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축하행사에서는 이사장 허연행 목사는 이학열 후원회장과 후원이사들의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테너 장주훈의 특송, 정인국 장로(단비TV 부이사장)의 바이올린 축하연주 그리고 이영훈 목사(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이사장)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20여년전 뉴욕기독교TV방송으로 시작된 단비TV는 2014년 단비기독교TV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정상교 사장이 취임했다. 그동안 뉴욕과 뉴저지 지역 스포츠 채널1487을 통해 기독교방송을 해왔으며, 10월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확장 및 인터넷TV시대에 걸 맞는 도약을 이루게 됐다. <기사제공: 단비TV>

동부교계 게시판



웨체트체스터 목사합창단 제 1회 정기연주회
 웨체트체스터 목사합창단 제 1회 정기연주회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제로 10월 6일(주일) 오후 6시 웨체트체스터장로교회(노성보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4)310-5490

뉴욕신광교회 34주년 감사주일 임직식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 34주년 감사주일 임직식이 10월 6일(주일) 오후 4시 열린다. 임직식에는 안수집사 1명, 권사 14명, 명예장로 1명, 명예안수집사 6명, 명예권사 8명 등 총 30명이 임직한다.
 ▲문의: (718)357-3355, 1010

IT 강좌
 네이버플러스가 제공하는 IT 강좌가 이번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초급-중급이 강의된다. 오리엔테이션은 11월 2일(토) 오후 12시 30분, 강의기간은 11월 9일-12월 7일(추수감사절 토요일 11월 30일 휴강),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강의 장소는 Neighbor Plus(2fl 256 Broad Ave. Palisades Park, NJ). 선착순 20명, 수강료는 50달러(경제적 어려운 학생은 보조 프로그램 있다). www.neighborplus.org
 ▲문의: (201)461-0909

권오현 목사 별세
 뉴욕신학대학교 총장 권오현 목사(사진)가 9월 24일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2세. 9월 30일 환송예배를 드리고 10월 1일 워싱턴메모리얼파크에 안치됐다. 고 권오현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학교대학원, 제너럴신학교, 주이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NYU(Ph.D.이수)에서 수학했으며 브루클린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기독교복음선교협의회 회장, 미주장로회 회장, 1987년부터 뉴욕신학대학교 학장 및 총장을 역임했다.

뉴저지교협 새 회장에 장동신 목사 제 33회 정기총회, 부회장 최준호 목사, 배광수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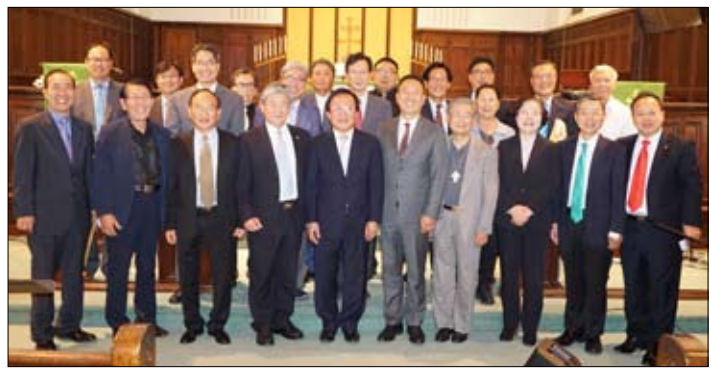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 33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장동신 목사, 부회장에 최준호 목사가 선출됐다.

9월 26일 저녁 7시 총대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의목양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장동신 신임회장은 "33회기 동안 ①회원 정리 ②철저한 회비납부 ③이사회 활성화 및 체계화 ④호산나대회 명칭 명료화 ⑤정교도 400주년 기념행사 ⑥교단별 회원 친교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2가지 방향성, 첫째 예측 가능한 교협이 되도록 인선하며 둘째, 안정된 시스템 확보로 건강한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인사말을 전했다.

이임하는 홍인석 목사는 총회순서지에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열매, 차세대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인사말을 게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강조하며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는 연합이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 30대회장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회의에서는 신임회원으로 예수교미주성결교 하솔소망교회(담임 조관식 목사)가 가입됐다.

32회기 사업으로는 △신년하례식 △부활절새벽 연합예배 △제 14회 어린이성경암송대회 △호산나전도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 △호산나어린이전도대회 △청소년호산나대회 △8.15 구국기도회 △목회자컨퍼런스 및 목회자 무료건강검진 △호



뉴저지교협 제33회 정기총회 임원선거를 마치고 신규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산나어린이찬양대 등을 개최했으며, △선교사자녀 수련회 △청소년 JFM컨퍼런스를 후원하고 2018년 12월 지역한인단체들과 함께 팔파, 레오니아, 린지필드 경찰서를 방문했다.

재정은 총수입 63,054.08달러, 총지출 56,775.47달러로 보고했다.

이날 교협회관건립위원회 보고(이병준 목사)에서 회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질문이 오갔으며 이에 대해 회칙 11조(특별위원회)에 명시된 대로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단독후보로 출마한 부회장 장동신 목사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준호 목사가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당선됐다.

선관위원장 박찬순 목사가 투표할 것을 제안했으나 회원들은 단독후보는 통상 박수로 추대했다고 결의해 홍인석 회장이 가부를 물어 당선을 발표했다. 새 임원단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회장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 △부회장 최준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평신도 부회장 배광수 장로(뉴저지연합감리교회) △감사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 육귀철 장로(주수원교회).

회의에 앞선 예배는 장동신

목사 인도로 기도 이문홍 장로, 성경봉독 권광희 목사, 찬양 뉴저지장로성가단, 말씀 윤명호 목사, 회계 육귀철 장로, 헌금특송 신현미, 축도 김창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직전회장 윤명호 목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신 29: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과거의 선한 전통을 지켜나가자는 보수와 그 터 위에 앞서 나가자는 진보의 연합으로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좋은 교협 전통을 지키고 거기에 민중지 말고 새로운 일을 발전시키며 상호존중하고 세워나감으로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뉴저지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동찬 변호사와 데이빗정 변호사가 참석해, 2020년 인구조사에 한인교인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이병홍 목사 은퇴식을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큰 허물없이 은퇴하게 됨에 감사" 새가나안교회 이병홍 목사 은퇴식

새가나안교회 이병홍 목사 은퇴식이 9월 29일 오후 5시 본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병홍 목사는 1983년 뉴욕 서니사이드에서 새가나안교회(전 뉴욕중앙성결교회)를 개척하고 36년간 시무했으며 뉴욕 목사회와 뉴욕교협 회장을 역임하고 뉴욕성신클럽, 한민족 복음화뉴욕협의회, 바울선교회, 국제사랑재단 등 뉴욕교계 연합사업에 이바지했다.

은퇴식에 앞서 지난 20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병홍 목사는 "36년 목회를 마친다"며 "빌립보서 3:14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는 말씀처럼 불려주심에 감사하며 큰 허물없이 은퇴하게 됐다"고 말하고 "위기가 많았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견뎌왔다. 극복할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민목회는 특수목회다. 한국정서와 다르다. 10년 이상 해야 이민목회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인 수에 상관없이 인내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목회해왔다. 은퇴 후에는 떠나는 것이 이민목회 정서에 맞는다"고 말했다.

뉴욕교계단체 전직회장들에 대해서는 "전직 회장들은 자문위원으로 요청이 있을 때 자문하고 기도해주면 된다. 그 이상

관여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홍 목사는 영주교교와 서울신대 대학원을 졸업후 1978년 목사안수를 받고(기성 33회 총회) 병원 원목으로 근무하다 1981년 도미, 뉴욕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박사학위(D. Min, 1990년)를 받았으며 뉴욕신학대학(총장 권오현 박사)에서 35년간 실전문학교수로 사역해왔다.

감사예배는 새가나안교회 최요셉 목사 인도로 이성현 목사(미주한인 나사렛성결교 총연합회장)가 기도하고, 설교는 사무엘 바셀 목사(메트로뉴욕지구나사렛교단 감독, 통역 박해림 목사)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의 말씀에서 안전을"(행 20:32)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은퇴식은 은퇴사 이강역 장로, 공로패 증정 류양렬 장로, 축하패 증정 이성현 목사(교단) 송병기 목사(목우회), 특주 유안나 집사, 축사 정순원 뉴욕 교협회장 박태규 뉴욕목사회장 김석형 바울선교회장, 축가 이광선 집사, 답사 이병홍 목사, 광고 및 꽃다발 증정,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홍 목사는 "목회 중 어려웠던 일은 말할 수 없으나 모든 목회자들이 겪는 일"이라며 "감격스럽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고 말하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도들을 소개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9월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9월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는 제 70차 조찬기도회가 지난 26일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백달영 장로의 인도로 임형빈 장로의 대표기도, 설교 허윤준 목사, 장로중창단의 봉헌특송, 김주열 장로의 헌금기도, 회장 김영호 장로의 인사, 송윤섭 장로의 2019 제 7차 다민족선교대회 결과 보고, 신승룡 장로의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허윤준 목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14:6-12)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갈렐의 신앙을 본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받은 사랑을 베풀며, 희생과 봉사의

본을 보이는 장로들이 되기를' 권면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미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허윤준 담임목사와 뉴욕새생명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회장 김영호 장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통성기도 후, 김재관 장로가 마무리 기도했다.

허윤준 목사의 축도 후 남태현 장로의 조찬기도에 이어 뉴욕새생명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조찬을 나누고, 다민족선교대회 결산보고 및 평가회, 10월 आयु회에 대해 협의하고 김영호 장로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교협 제 45회 정기총회 공고

10월 21일(월) 오전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순원 목사) 제 45회 정기총회가 10월 21일(월)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교협은 총회에 앞서 사전 등록 사항을 회원교회와 총대들에게 공지했다. 사전등록은 10월 1일(화)부터 10월 15일(화) 오후 5시까지이며, 등록자는 본인 증명 아이디를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담임목사 불참 시 위임이 가능하며, 동일교회 소속 목회자만 사유서 지참 시 투표할 수 있고, 사전 등록된 평신도대표

가 불참 시 위임이 가능하며, 동일하게 사유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등록 총대는 목사대표 1인, 평신도대표 1인 등 2명이다.

사전등록 방법은 ①Homepage www.nyckcg.org ②Email: nyckcg@gmail.com ③전화: 718-279-1414 ④ 사무실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년 회비는 120달러이며 온라인 등록 시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전달

지난 9월 22일, Somm Mission Church(이영만 목사)와 극동포럼뉴욕지부(박성양 회장)가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한인노숙자쉼터 운영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설교는 방직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가 했다. 뉴욕나눔의집에는 남, 여 30여명이 숙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양 회장, 방직각 목사, 박성원 목사, 이영만 목사.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뉴밀레니엄뱅크, 패밀리터치에 후원금 전달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18주년 후원모금 갈라가 지난 9월 24일 열린 가운데 뉴밀레니엄뱅크가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허홍식 행장, 패밀리터치 정정숙 원장을 비롯해 김선 이사장, 김충정 부원장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기부금 5천달러는 행복한 가정, 이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대상 미주장신대 이건민 전도사 제4회 남가주신학대학 설교페스티벌

제4회 남가주신학대학 설교 페스티벌이 9월 28일 오전 9시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이민교회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최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가 주관해 열린 이날 설교페스티벌은 이건민 전도사(미주장신대학교/나성한미교회)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이건민 전도사는 "지도해주시는 이상명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교회 신유환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해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바



제4회 남가주신학대학 설교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떠나느라 보면서 그 마음 가지고 목상하고 전달했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이상명 총장은 "저희학교가 부족하지만 대상 받게 돼 감사

하다"며 "귀한 말씀 사역자들이 이 땅에 많이 배출돼 어려운 이민교회 돌보고 부흥하고 개혁해 나가는 신실한 사역자 배출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구경모 목사(미주장신대 교무처장) 진행으로 열린 설교페스티벌은 8개 한인신학교 학생들이 시편 9:2, 이사야 60:1, 에스겔 57:6-12, 마태복음 5:14-16, 에베소서 2:14-16 등 주어진 성경말씀 중에서 선택하여 말씀을 전했다.

다음은 이날 설교페스티벌 시상내역이다.

△대상: 이건민(미주장신대학교) △설교최우수상: 강샬롬(미성대학교) △설교주해상: 최은(월드미션대학교) △설교전달상: 장진희 △임상: 다이아나 김(미주장신대학교), 잭키지(에반겔리아대학교), 정희경(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작은교회를 위한 부흥회 섬김 사역

복음장로교회를 개척하여 37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한 김상덕 원로목사가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사경회 섬김 사역을 시작한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기 원하는 김상덕 목사는 사례비나 교통비 비용을 자비량으로 한다. 집회가 필요한 교회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덕 목사는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경증 총회장이며 현재 중남미 선교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유튜브 방송(복음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714)213-1342 sangdkim@yahoo.com

성화장로교회 임직예배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장로장립, 권사취임, 원로장로추대예배를 10월 6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310)515-1191

총남당진 국제성시화대회

2019총남당진 국제성시화대회가 10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총남 당진 동일교회(담임 이수훈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미주에서는 34명이 고국을 방문해 성시화대회에 참가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가 주최하고, 총남성시화운동본부와 2019총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열리는 2019총남당진 국제성시화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와 264개 한국의 전도시의 성시화운동의 동역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문의: (213)384-5232

남서부지방회 2019 홀리바이벌성회

미주성경교 남서부지방회 주최로 진행되는 홀리바이벌성회가 "사는가? 사라지는가?"라는 주제로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임석목사(부산대안성경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집회일정은 11일(금) 오후 7시30분, 오렌지중앙교회 "이 복음은 어느 복음인가?", 12일(토) 오후 7시, 유니온교회 "사명, 그대 비를 내리는 사람", 13일(주일) 오후 5시30분, 산샘교회 "믿음, 어떤 믿음인가?"

▲문의: (626)858-8300유니온교회, (714)891-2370오렌지중앙교회, (310)328-2200산샘교회

달라스교회연합 부흥성회

달라스교회연합 부흥성회가 10월 6일(주일) 달라스뉴송교회(담임 박인화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성회 강사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다.

▲문의: (214)938-1287, 498-6616

사우스베이 한인교회 찬양제

사우스베이 한인교회 찬양제가 6일(주일) 오후 5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10)370-5500

제 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엔젤레스 대회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터 사역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하고 있는 CBMC가 제 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엔젤레스 대회를 10월17일-19일(토)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든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주강사는 공병호 박사.

참가비는 없으나 예약 필수다

▲문의: (213)910-7346, (213)273-5779



퓨리탄개혁신앙연구선교회 2019 퓨리탄 신앙 기쁨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퓨리탄목회와 성경적 교회” 주제 퓨리탄개혁신앙연구선교회, 가을 세미나

퓨리탄개혁신앙연구선교회(총재 이완재 목사) 가을세미나가 밝은빛교회(담임 장희선 목사)에서 9월 26일 오전 10시30분 열렸다.

“퓨리탄목회와 성경적 교회” 주제로 이완재 박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목회와 교회는 가장 큰 질문거리”라 운을 댄 이완재 박사는 “퓨리탄이 메이플라워호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자들이라 여기는데 그들은 분리주의자라 불렀던 필그림이다. 퓨리탄은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루터의 95개항은 당시 교회의 잘못을 꼬집은 것이고 시정하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개혁된 교회는 그 태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는 것이 개혁의 정신”이라며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일어난 것은 제국주의였고 더 약한 세속주의가 탄생했다.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 퓨리탄”이라 설명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기준은 퓨리탄의 근본”이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셨다. 따라서 천국은 지상에서도 있다. 퓨리탄은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맛보며 지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살고 그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퓨리탄들의 목회”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 제42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에서 살롬장애인선교회 회원들이 발송예배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천여 장애인 지원 및 복음전파 살롬장애인선교회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제42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을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박모세 목사는 “1999년 9월 첫 번째 시작한 사랑의휠체어 보내기는 올해 42번째 실시했다”며 “휠체어 등을 통해 출입 등 기동력이 제공돼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우간다 키르키즈스탄(중앙아시아)과 파라과이(남미)에 휠체어 619여대 포함 기타 의료보조기구(약20만 달러상당)가 컨테이너 한 대씩 보내지며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된다.

박모세 목사는 “전동휠체어를 제외한 모든 물품들이 중고 품이 아닌 새 것으로 보내진다”며 “한인사회가 불경기지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송식 예배는 박모세 목사의 사회로 열려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가 설교하고 박영서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예향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봉영창목사

‘진정한 영성회복은 찬송에서부터’ 한사랑교회 예향선교교회, ‘찬양목회’ 세미나

한사랑교회(담임 안산기 목사)와 예향선교교회(담임 김종호 목사)는 봉영창 목사(하와이 우리교회담임)를 초청, 찬송목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25일과 27일 각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봉영창 목사는 시편 124:1-8, 시편 57:1-11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날마다의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느끼고 자기를 도우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찬양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찬양의 삶을 살자”고 권려했다.

또한 그는 시편 69:30-31의 말씀을 들며 “우리의 찬양이

황송을 드림보다 낫다고 하시니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찬송하는 일이다. 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찬송하며 살아가자”고 말했다.

봉 목사는 LA집회에 앞서 23일 아리조나 에덴교회(담임 양명선 목사) 임직식에 참석해 말씀을 전했다. 봉영창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매년 1040 찬양집회(40일 동안 1000곡 부르기)를 비롯해 절기 100곡 부르기, 나이만큼 찬송 외워부르기 등 찬송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며 부흥하는 교회로 꼽히고 있다.

(이성자 기자)



9.28 서울수복 69주년 및 국군창설 71주년 기념행사 모습

9.28서울수복 69주년 및 국군창설... LA지역 예비역 단체와 일반단체 20여 기관 연합

LA지역의 예비역 단체들과 일반단체들 20여기관의 연합으로 9월 28일 오전 10시 맥아더 공원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9.28 서울수복 69주년 및 국군창설 7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최만규 남가주육군동지회장의 사회로 헌병전우회의 섬김으로 국민례와 순국선열 묵념과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장이인 김희창 목사의 기도, 기관단체장들의 전경 증언과 감사표현으로 호국 국경정신의 이식으로 진행됐다.

연사로 한국에서 참여한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원장이며 한미친선협회(사) 회장 홍사광 박사는 “미국의 트루먼이 한국전쟁과 맥아더 장군 지원으로 오늘의 자유 한국이 생겨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화한 LA지역 625 참전 대한민국공파회 김해룡 회장을 비롯해 영관장교연합회 미서부지회 부회장, 월남전참전자회 조남대 전 회장,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를 대표해 원태어 전 해군제독, 3.1운동여성동지회 그레이 송 회장, 김영구 목사, 미군연합회 LA지역회 피터 세이즈 회장, KWVA #328지구 회장과 LA한인회 부회장 등이 단에 올라 발언했다.

그날에 민, 예비역단체들의 연합은 호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 국가적 행사에 연대의식을 더욱 갖기로 했으며 한결 같이 한국에 정체성 위기를 발전적 리더십 발위로 세계 강국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준비되길 소망했다.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ll Periodicals Publications Except Regulator Publications) | | | |
|--|--|--|---|
| 13. Publication Title | | 14. Issue Date for Circulation Data Below |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 Sep. 9, 2019 | |
| 15. Extent and Nature of Circulation | | Average No. Copies Each Issue During Preceding 12 Months | No.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Nearest to Filing Date |
| a.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 2,500 | 2,500 |
| b. Paid Circulation (By Mail and Other Classes) | | 386 | 386 |
| c. Free or Nominal Rate Copies (By Mail and Other Classes) | | 84 | 81 |
| d. Total Paid (Sum of 15b and 15c) | | 962 | 967 |
| e. Free or Nominal Rate Copies (Sum of 15d, 15e, and 15f) | | 1,422 | 1,424 |
| f. Total Distribution (Sum of 15d, 15e, 15f, and 15g) | | 2,384 | 2,388 |
| g. Copies not Distributed (See Instructions to Publishers #4 page A2) | | 150 | 150 |
| h. Total (Sum of 15f and 15g) | | 2,500 | 2,500 |
| i. Percent Paid (15d divided by 15f times 100) | | 66.5 | 66.8 |

“우울증과 영적 치유” ③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세 종류의 고통

1. 신체적 고통

1)신체적 질병: 오랜 질병과 통증으로 고생하며 고쳐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우울해질 수 있다.

2)신경학적 또는 화학적 문제: 신경학적이거나 화학적 불균형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2. 정서적 고통

1)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마음에 충격적인 고통을 받아 감정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고인과 가졌던 관계에 따라, 그들은 죄책감, 분노, 원한, 외로움, 혹은 다른 감정의 느낌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슬픔과 상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때 우울해질 수 있다. 상실로 인한 고통의 치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슬픔과 아픔

을 딛고 일어서고자 시도할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2)상처 난 인간관계: 슬픔과 어긋난 인간관계에서의 상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사람은 종종 우울하게 된다.

3)무가치한 느낌: 사람이 오랜 기간을 무력감, 절망감, 실망, 지루함, 죄책감, 수치심, 엄격함, 혹은 자기 증오와 낙담함으로 고통을 겪게 될 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4)중독문제: 술이나 마약 같은 약물 남용으로 고통 받는 사람, 심지어 처방약일지라도 이를 잘못 사용하면 우울증과 잘못된 논리의 문을 열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취약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중독이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때 술과 마약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오직 치유를 더디

게 할 뿐이다. 마약과 술의 영향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영적 억압에 놓이게 된다.

5)경제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어찌할 수 없다는 느낌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6)타인의 거절: 사람에게는 사랑과 수용이 필요하다. 이따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지 못할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7)삶의 목적과 방향의 결여: 사람들이 충분한 삶을 누리는 법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이 권태감을 느낄 때 우울해질 수 있다. 간혹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물질, 사람, 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이나 분노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우울해질 수 있다.

10)자기애와 자기용서 결핍: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거나 자존감이 결여되어서 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또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3. 영적 고통

우울증은 영적인 고통이 원인일 수 있다. 삶에서 생기는 문제를 버거워 하고 감정적인 통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에 더욱 취약하다. 영적인 고통은 뒤틀린 논리나 영적 억압에 의해 받게 된다.

영적 고통의 두 가지 원인

하나님 도우심과 말씀 처방전 통해 정서적 영적 고통 치유 영적 고통은 뒤틀린 논리(파괴적 생각)나 영적 억압이 원인

나 혹은 술과 마약으로 채우려는 사람도 있다.

8)장기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학대 상황: 극심한 고통이나 전쟁, 구속, 자연재해, 가치 투쟁, 정신병, 혹은 학대와 같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고통과 문제 및 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9)분노와 용서의 조절장애:

1)뒤틀린 논리

파괴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생각이 심어지고, 물을 먹고 자라서 영적인 고통과 괴롭힘의 감옥에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곳이다. 파괴적인 생각에 더욱 심취하면 할수록 감성적이고 영적 혼란과 고통만 더해질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우울하게 만들며 더불어 절망하게 한다. 이런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절망, 슬픔, 분노, 걱정, 무력감과 다른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고정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터인지 말하고 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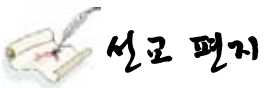
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3-5).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처방전을 통해 정서적, 영적 고통으로부터 치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음성에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권면해주시는 밝은 면을 볼 수 있다.

△뒤틀린 논리의 원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영향을 받는데, 여섯 가지를 생각해본다. 다음은 절망의 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우리가 자신을 평가 절하한다. 2)우리 가족 내에서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배운다. 3)파괴적인 사고는 초자연적인 발달을 가지고 있다. 악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절망의 씨앗을 심는다. 4)문화와 미디어 또한 어느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5)친구를 비롯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6)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시드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난 1월에 SEED선교회에 복귀한 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선교중보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보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D와 ICM이 함께 하는
청년선교훈련

작년 여름 토론토에서 가졌던 40일 아랍난민 아웃리치 후에 주님은 청년을 선교로 동원하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침내 9월부터 청년선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피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열두 명의 청년이 내년 5월까지 남가주, 워싱턴, 뉴욕, 유럽의 그리스,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ICTC센터에서 공동체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40일 하프타임 선교학교 강사님들과 약 30개 교회가 훈련에 동참해 주실 예정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

한 숙소와 재정을 공급해 주시며 열두 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선교공동체 훈련을 통해 복미에 청년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을

하는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BS 글로벌복음방송



청년 공동체선교훈련에 지원한 디아스포라 청년들. MK와 PK들이 대부분으로 한국어와 자신이 자라난 곳의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 아프리카 말라가시어를 구사합니다.

제자로 세우신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 교회가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제5회 GBS방송선교대회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10/1-4). 소련연방

해체 후 1992년부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곳에 살던 20만 고려인 동포들이 러시아권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국가들의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고려인들은 또



다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선조들이 살던 연해주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호주, 북미 등 온 세계에 흩어진 고려인 동포들은 정체성

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동포나 일본의 재일동포를 위한 방송도 필요하지만, 시급히 필요한 고려인 동포를 위한 복음방송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5일에는 사랑의교회에서 GBS Korea 개국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스페인 중보기도순례

지난 7월 말에 JAMA 대표이신 강순영 목사님 내외분을 만났습니다. 뜻밖에도 강순자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 스페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5개월간 스페인에 가서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14면으로 계속)

본/사/방/문

정성구 목사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

정성구 목사(총신대 명예교수, 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가 미주 방문 중에 지난 9월 23일 본사를 찾았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으로 한국 개혁주의신학 연구에 앞장 서온 정성구 목사는 34년간 연구원에 역사적 자료들을 보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칼빈박물관으로 전 세계에서 방문한다고 소개했다. 정 목사는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이 칼빈, 카이퍼, 멜빈으로 이어오면서 한국에서 뿌리 내릴 즈음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 됐다”며, “요즘 한국이 일본과 정치적 마찰을 빚으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고 ‘독도는 한국 땅’(Korean territory)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인들은 논리적이 못하고 정서적”이라고 표현했다.

정 목사는 변영태 외무장관 시절 독도에 한국 깃발을 꽂았다며, 최근 칼럼들을 통해 ‘한국 땅’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총 8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 ‘한국교회 바로 알기’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관한 책으로 10개 국어로 번역됐다고 소개했다. 정성구 목사는 이번 미동부 순방길에 피츠버그에 있는 RPTS(Reformed Presby

Theological Seminary)을 방문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청교도신앙으로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청교도와 개혁주의는 교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요즘에도 1년에 한권 꼴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한 정 목사는 “학문의 정진은 자료전쟁”이라며 “원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 역사의 행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후진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를 강조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내놓을 게 없다”며 “지금 한국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칼빈연구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1-9)에 있으며 이메일은 skc0727@yahoo.com.

(유원정 기자)



뉴욕 본사를 방문한 정성구 목사부부

선교 편지 케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마침가 신학교 2019-20년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장 무르와 목사가 그만두고 부교장이었던 무인데 목사가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생 한 분이 와서 5명의 강사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데 목사가 교장이 되면서 일이 많아져서 목회하고 있던 무쿠수교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5월 새 학기에 일반과정에 25명, 특별과정에 44명 그리고 무임기 분교에 17명, 모두 86명이 공부하는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고, 2019-20년 학기의 특별과정 두 번째 학기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공부를 했고, 저는 1학년의 “

전도와 제자훈련”, 2학년의 “구약개론 3”, 시가서”를 가르쳤습니다.

선교사 훈련대학 선교사 훈련대학은 2명이 더 와서 5명의 학생들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새 학생들의 이름은 사무엘 무티시아와 사무엘 칼로키입니다. 첫 주에는 “이슬람학2”와 “바울의 선교방법”, 두번째 주에는 “연대적 성경 이야기”, “문화인류학 2” 그리고 컴퓨터 2를 오후에 가르쳤습니다.

혼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주간 4과목을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두 마쳤습니다.

컴퓨터는 신학교에서 사무를 보는 안나 목사가 가르쳐줍니다. 다음 학기는 11월 말에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잘 훈련하고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이에경 선교사는 2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던 유

치원, 초등학교 사역을 다시 맡아 하기로 했고, 학교를 신학교 부속으로 하고 신학교 이사회와 함께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2일부터 세 번째 학기가 시작하였고, 모두 33명의 어린이들과 4명의 선생님들이 있



습니다. 학교가 교육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들과 초등학교는 정식 교육대학을 나온 선생들이 필요합니다. 이 선생들은 월급을 더 주어야 하는데 학교의 재정으로는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내년에는 유치원을 두 반으로 나뉘고 4학년이 올라가서 선생 둘을 더 구하여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좋은 선생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마련했던 플라스틱 책상과 의자가 모두 낡고 부러



져서 다시 튼튼하게 철재와 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의자는 20개를 만들었고, 20개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식당 책상과 의자를 만들려고 철재로 프레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주문했는데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구했으면 합니다.

5에이커를 얻은 땅에 시작한 학교 건축은 내부 공사를 다 마치고 외부 일과 장문의 유리, 페인트만 남았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권사님이 10,000불을 헌금해주셔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다 써서 일단 돈을 빌려 진행했습니다. 외부까지 다 마치려면 5,000불정도 더 필요합니다. 학교 예배당은 한국의 새생명교회에서 10,000불을 헌금해 주셔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실 4칸, 사무실(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포함)과 화장실을 지어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 조금 힘이 듭니다. 재정이 다 총당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 가족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저는 신학교 강의, 초등학교 건축, 선교사 훈련학교 강의와 행정으로, 이에경 선교사는 다시 맡은 학교 일과 8월에는 선교사 훈련학교 점심을 만드는 일 등 연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에녹이는 9월 6일 아들을 보았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에단 인호(Ethan Inho Lee)입니다. 딸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마침가 신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도록 -타리카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나가도록 -선교사 훈련대학 학생들이 잘 훈련받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좋고 믿음이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가족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019년 9월 이사야, 이에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org

시드선교회

(13면에서 계속) 사모님의 말씀이 제게는 스페인 중보기도순례를 계속 하라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페인 영적부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내년 3월에 제2차 스페인 중보기도순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부터 마드리드에 머무시면서 5개월 동안 스페인 영적부흥을 위해

오직 기도만 하시는 강순자 사모님을 생각하면 열흘간 스페인 도시들을 순례하며 중보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중보기도순례를 통하여 스페인의 마을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걷는 길

유혜숙 선교사는 영희 맥도날드 목사님의 간증집 “예수님과 걷는 길”을 애니메이션 영상으

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욱 유혜숙 선교사 드림 pastorjuan@gmail.com Kakao id: prayingforspain www.icmtoday.org www.seedtoday.org

영어로 보는 성경 (37)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Habakkuk 2:2-4

2)Then the Lord replied: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3)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NIV 2011)

WORD & IDIOM

* revelation: 계시, 묵시 * write down: 기록하다 * plain: 명확한 * tablet: 현판, 서판 * herald: 사자, 포고자 * so that A May ~ : A가 ~ 할 수 있도록 * await: ~을(를) 기다리다 * appointed: 정해진 * speak of ~: ~에 대하여 말하다 * linger: 더디다, 서성거리다, 우물쭈물하다 * certainly: 틀림없이 * delay: 늦추다, 미루다, 지연하다

GRAMMAR

2) Then the Lord replied:

그때 주께서 대답하셨다: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계시를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판 위에 명확하게 하라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사자가 그것을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 그때 주께서 대답하셨다: 계시를 기록해서 사자가 그것을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

* <make it plain>은 5형식(주어+동사+목적어+보어)문장의 명령형이다. 이 문장에서 <make>는 <목적어를 ~하게 하다, ~되게 하다>등의 의미를 갖는 사역동사이며, <it> 다음에 쓰인 <plain>은 형용사로 <it>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의 <it>는 앞문장의 <revelation>을 지칭한다.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에서 <it>는 판위에 명확하게 된 <revelation>을 가리키는 것으로 직역하면 <사자가 ~판위의 명확한- 계시를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이지만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이란 의미로 의역하고 있다. 참고로 <so that A may ~> 문장을 해석할 때 <may ~>이하의 내용이 길면 우리말 번역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이 경우 앞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고 <so that A may ~>를 <그래서 A가 ~을(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의미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위의 번역보다는 <계시를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판에 새겨서 사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가 훨씬 자연스럽다.

3)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왜냐하면 (그) 계시가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그것은 끝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가짜를 입증하지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그 계시는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끝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거짓을 증명하지 않을 것이다.

* <For ~> 이하는 계시를 분명하게 판에 새겨야 할 이유가 아직 계시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 이하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다.<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은 확실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 비록 끝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끝은 확실하게 올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 이 문장에 쓰인 모든 <it>는 계시에 나타난 <끝>을 지칭하는 지시 대명사이다. 우리말의 경우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를 이 문장의 순서대로 <끝은 확실하게 올 것이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로 번역을 하면 의미의 전달은 되지만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and> 다음의 <will not delay>를 먼저 해석하여 <끝은 지체하지 않고 확실하게 올 것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럽다. 참고로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STUDY & THOUGH

■ 2절에서 "사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는 뜻"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증거 되어야하며, 또한 세상 끝 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으며 기다림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생각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해도 정하신 때가 차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 Have patience and follow the path of faith.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많은 날을 지내고(왕상18:1)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고 우상숭배에 찌든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 후 그를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선포 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3년여 준비과정을 잘 마치게 하신 후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게 하기위해 아합왕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기도예 묵숨 걸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왕상18:1-2)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전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포한 후 3년 만에 다시 아합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말씀이 임하심을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 아합에게 갈 때도, 그릇 시냇가를 갈 때도,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도, 그리고 다시 아합에게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가슴에 새겨진 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임하시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왕상18:1-2)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다리니 말씀하신대로 이루셨습니다. 본문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곳은 기근이 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줄 줄 알고 있지만 바알을 섬기는 곳에 남은 것은 기근이 맹렬한 것뿐입니다. 오늘 위로부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남은 것은 실패뿐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왕상18:3-4)

본문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종, 노예처럼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오바다는 바알숭배의 심장부인 왕궁의 궁내 대신입니다. 우상숭배의 대표자 아합왕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세벨이 있는 곳에서 매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10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고기를 먹였습니다. 까마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위험에 처한 주의 종들을 숨겨주고 공경한 것입니다.

금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왕상18:5-13)

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드디어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

자를 보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인사합니다. 오바다는 사회적 지위로 보면 당대의 고위관료였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나타난 야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를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오바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이 멈출 수 있는 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왕상18:14-15)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간다고 하니 오바다가 팔짱 씁니다.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아합에게 보이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께서 오늘 비를 내리시기 전에 아합에게서 해결할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기 전에 우상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먼저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때 위로부터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백인 민족주의” 는 무엇인가?

이코노미스트, 전 세계로 확산...탄생 배경, 성장 그리고 현주소 보도

백인민족주의자(white nationalist)에 의한 테러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51명, 미국 엘파소에서는 22명이 사망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2011년 오슬로와 근교에서 무려 77명을 살해한 안데르스 브레이빅과 같은 인물들을 영감으로 삼으며 “대체(replacement)”에

대한 공포를 범행 동기로 밝히곤 했다. 도대체 백인민족주의(white nationalism)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What is “White Nationalism”? : Governments have underestimated a growing, and murderous, threat).



이 현상은 이념적, 지리적으로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거칠게 말하자면, 백인민족주의자들은 백인을 위한, 백인에 의한 백인 인종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일부는 다른 인종 역시 그들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서 타인종을 열등하게 본다는 인식을 감추기 위해 나름 노력한다. 하지만 다수는 백인우월주의자로, 백인이 최상에 위치한 인종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엄격한 이민 제한 정책, 인종 청소, 나아가 학살에 이르는 대책을 요구한다. 이들의 주장은 “백인 학살” 또는 “백인 대체”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있다. 백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 인종 간 출산 등을 통해 백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임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로 확산된 현대의 백인민족주의는 남북전쟁 후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다. 노예제가 끝나면서 각 주들은 서유럽 후손인 백인 프로테스탄트들의 특혜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짐 크로우 법을 통한 인종분리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유사 군대의 폭력이나 린칭

도 이어졌다. 중국인과 아일랜드 가톨릭교도, 유대인들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백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졌다.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매디슨 그랜트가 1916년에 발간한 “위대한 인종의 소멸(The Passing of the Great Race)”은 이민 배척주의와 우생학을 버무려 백인 우월

주의와 “인종자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랜트에게 편지를 써 이 책이 자신의 성경과도 같다고 밝혔을 정도다.

나치즘과의 전쟁, 그리고 5-60년대의 민권운동을 거치며 불명예를 떠안게 된 백인민족주의는 20세기 말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유럽과 미국에서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8년 데이비드 레인은 “백인 학살 선언(The White Genocide Manifesto)”를 써서 그랜트의 “인종 자살론”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이 글로 전 세계에 백인민족주의의 외침이 잘 알려지게 됐다. 백인민족주의자들이 “14단어(the 14 words)”로 떠받드는 문장(우리 민족의 존속과 백인 아이들의

부군을 미화하는 이들도 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반유대주의적 음모론을 떠받드는 이들도 있다.

1978년 윌리엄 루서 피어스가 펴낸 백인민족주의 디스토 피아물인 “터너 다이어리(The Turner Diaries)”는 백인 인종을 수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맞서는 저항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데이비드 레인은 물론 오를라호마 청사 폭발 테러를 일으켜 168명을 살해한 티모시 맥베이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백인민족주의는 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모니터 반대편의 화자가 진지한지, 농담을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시대의 아이러니를 흡수한 것이다.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르노 까뮈는 “거대한 대체(The Great Replacement)”를 통해 진정한 프랑스인이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이민자들로 대체되고 있다고 이 “대체주의적” 엘리트들이 부추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백인민족주의자들 역시 이 같은 무슬림 혐오를 일부 차용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라틴계, 흑인, 유대인을 주요 적대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백인민족주의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도가 지나친 비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언어가 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빌에서 일어난 “우파여 단결하라” 시위에 대해 대통령은 “디장군 동상 철거에 아주 조용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라 칭했다. 햇볕을 들고 나치를 자처하며 “유대인은 우리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대해 너무나도 너그러운 평가였다.

2018년은 오를라호마 청사 테러가 있었던 1995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파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해였다. 범인의 절대 다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었다. 서구 세계의 정부 당국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위협이다.

통해, 백인민족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유럽의 백인민족주의자들은 무슬림에 의한 유럽 점령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9.11 테러와 글로벌 지하드주의의 부상 이후 더욱 두드러져

백인을 위한, 백인에 의한, 백인 인종국가 건설 추구 다수는 백인우월주의자...인터넷과 함께 빠르게 진화

미래를 지켜야 한다)도 여기에 서 나온 것이다.

백인의 우월성에 대한 핵심적인 믿음을 공유하는 하지만, 백인민족주의도 다양한 갈래로 나뉜다. 연방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남북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받아들여

민주당 사회주의 정책 아직은 민심반영 안돼

(1면에서 계속)

에머 위링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를 “이미 탄핵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짓말쟁이 대통령” 줌으로 치부하는 한 민주당은 2020년 선거에서 절대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꼬집었다.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2020년 선거가 지난해 중간선거와는 확연히 다르리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덴 비숍(Dan Bishop) 당선자는 2년 먼저 출마해 지역구에 공을 들여온 민주당 맥크레이디 후보를 꺾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9번 선거구의 중요성을 잘 아는 민주당이 주 밖에서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 쏟아 부었지만, 비숍 당선자는 2년 전 공화당의 해리스 후보보다 오히려 2%P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케이비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치 평론가들이 줄곧 해온 말과는 정반대로 공화당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승리를 거둬 내년 선거의 승리 전망을 밝혔다.

현재 116기 하원이 구성된 뒤 치러진 세 차례 보궐선거 결과는 3:0이다. 모두 공화당이 이겼다. 세 번 다 공화당 후보는 2018년 중간선거 때보다 더 많은 표를 받으며 승리했다. 펜실베이니아 12번 선거구, 노스캐롤라이나 3번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는 심지어 2016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현재 공화당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한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민주당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첫째, 민주당 하원의 사회주의 정책은 미국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지역구에 출마

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과격한 사회주의 야젠다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우습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잘 수행해냈다는 점이다.

공화당이 노스캐롤라이나 9번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다음 하나였다.

“민주당의 덴 맥크레이디 후보는 워싱턴의 기득권 민주당 지도부가 내세운 사회주의 야젠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또 다른 기득권 정치인이다”.

비숍 당선자 캠프가 준비한 공약과 공화당전국하원위원회,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메시지도 훌륭했지만, 핵심은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유권자와 괴리된 이념에 빠져있는지 꾸준히 부각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화당이 2020년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는 데도 훌륭한 길잡이가 돼준다.

비숍 당선자 캠프는 한정된 자

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공화당전국하원위원회는 일찌감치 TV광고를 사뒀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 광고비용이 오르기 마련인데, 그 전에 미리 광고시간을 선점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처럼 재빠르지 못했고, 그 대가로 TV광고에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했다.

맥크레이디 후보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2년째 선거운동을 해온 거나 다름없다. 비숍 후보는 인지도에서 한참 뒤쳐진 채로 선거를 시작했지만, 효과적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자금을 모으며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비숍 캠프는 공화당하원전국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윈레드(WinRed) 플랫폼에 가입했다.

윈레드는 개인의 소셜 후원금을 효과적으로 전달, 사용하는 공화당의 디지털 선거자금모금 플랫폼이다.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는 윈레드의 첫 시험대이기도 했다. 비숍 후보는 짧은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한 지지자들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모으는데 성공했다. 윈레드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브랜 드 효과였다.

원래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관건이다. 아무래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보니 지지자를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쪽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특출난 능력을 지녔다. 이번에도 투표 하루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직접 와서 유세에 참여했다. 모든 미디어의 관심이 노스캐롤라이나 9번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쏠렸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푹푹히 알게 됐다. 아마도 비숍 당선자의 승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순간을 꼽으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더 많

은 표를 얻었던 곳 가운데 하원의석 31석을 차지했다. 이제 다시 대선과 함께 치르는 2020년 선거는 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당과 워싱턴 공화당 지도부는 모두 이번 보궐선거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선거 체계는 지난 중간선거 때보다 훨씬 더 자리가 잡혔다. 지지자들의 후원금, 풀뿌리 단체와 협력한 조직적인 유세 등이 잘 어우러진 덕분에 덴 비숍 후보는 워싱턴에 입성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전국위원회, 노스캐롤라이나 지역당, 비숍 캠프, 풀뿌리 단체, 유권자 모두의 승리였다. 민주당은 2020년 선거에서 여당이라는 간판을 잃지 않으려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여겨야 한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확고한 모멘텀을 살려 2020년 선거를 준비해나갈 것이다.